

리아호나



리아호나



표지
앞: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뒤: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시.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윌슨 앤더슨.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감사하는 태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4 어린이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이드 케이 파커 회장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영원히 지속될 사랑을 키움
- 36 스페인: 신앙의 지평선을 찾아서 돈 엘 설
- 46 되돌아가는 여행 비버라 에이콕
- 48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란

- 10 벤과 함께 읽으면서 태미 먼로
- 13 물문 메시지: 그 분들을 기억하십시오
- 24 간증을 키움 테머러 리덤 베일리
- 26 말일성도의 소리: 감사에 찬 마음
- 32 위험한 질문 브래드 윌콕스

친구들(별책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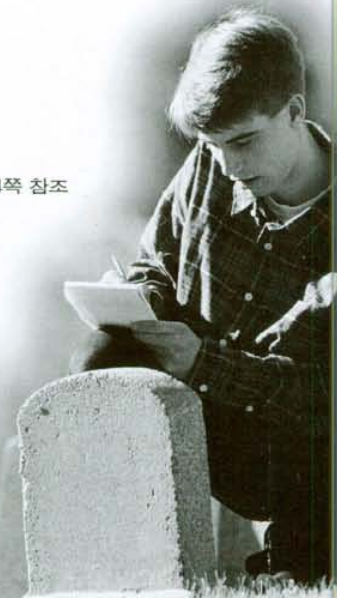
- 2 친구가 친구에게: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
- 4 이야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네이던 에이 홀
- 7 함께 나누는 시간: 약속을 지킴 앤 제미슨
- 10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쿠넬리아 데팅마이어
- 12 신약 성서 이야기: 엘리사벳과 사가랴; 마리아와 천사
- 16 "날 따르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32쪽 참조



36쪽 참조

24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앨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킨, 리처드 지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스,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마이아림

편집인: 말린 케이 쟈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교파 파장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쉰니

그래픽 책임자: 엘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라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셰익스피어

편집 보조: 래리 케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캠펠

선임 디자이너: 세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생산: 레지널드 케이 크리스티슨, 데니스 커비, 제이슨 엘 엠

포드, 디나 엘 소넨슨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권: 제 410호, 제 37권, 제 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0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희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전달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2232-1441, ☎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투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카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May 2000 No.5.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살아 계신 예언자에 감사함

1999년 5월호 리아호나(영어)에서 대관장단 메시지를 읽을 때까지는 저는 자주 저의 책임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쓰신 "인생의 책임"라는 메시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발전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메시지가 꼭 나를 위해서 주어 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읽었고 곧바로 친구들과 이 것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 계신 예언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케마콜람 콜린스 엔케마콜람
나이제리아 포트 하코트 스테이크
루무오마시 와드



영으로 배움

매달 저는 리아호나(노르웨이어)를 받기를 고대합니다. 이 잡지에 있는 기사, 말씀, 메시지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1999년 5월호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이 쓰신 기사, "영으로 가르치고 배움"을 읽고 다시 한번, 경전을 읽으며 복음을 공부할 때 영이 제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기사에서, 옥스 장로님은 "가슴에 뜨거운 느낌"은 "위안과 평온의 느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성신이 저에게 진리를 증거할 때, 저는 내적인 평온함과 화평, 삶을 가지 있게 만들어 주는 행복과 조화를 느낍니다.

모나 함네스
노르웨이 트롬스 지방부
하스타드-나빅 지부

편집자 주: 우리는 아래 질문에 답하여 리아호나의 질의 응답 편에 참여할 청소년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2000년 7월 1일까지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QUESTIONS AND ANSWERS 07/00, Liahona,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전자우편: Cur-Liahona-IMag@ldschurch.org. 여러분의 언어로 기록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성과 이름, 집 주소, 와드와 스테이크 (또는 지부와 지방부)도 함께 적어 보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동봉하여 주십시오. 이 사진은 반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 실을 것입니다.

질문: 저는 시간제 근무로 가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 때는 완전한 심일조를 바칩니다. 저는 아주 조금밖에 벌지 못하므로 제 심일조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가 심일조를 바치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태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삶의 방향과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 주셨으며 봉사를 통한 축복을 몸소 실행해 보이신 주님께 자주 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마굿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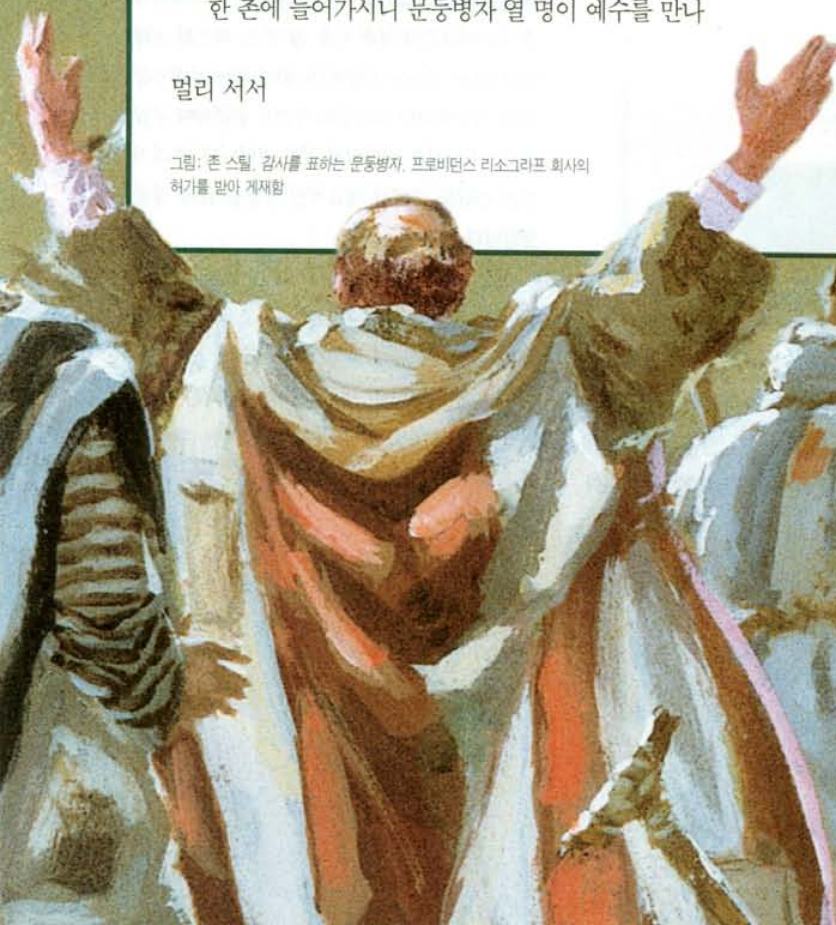
누가복음 17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림: 존 스윌, 감사를 표하는 문둥병자, 프로비던스 리소그라프 회사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누가복음 17:11~19)

신성한 중재를 통해 문둥병자들은 잔인하게 서서히 진행되는 이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들 중 돌아와 감사를 드린 한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감사함을 표하지 않은 나머지 아홉 사람은 주님께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과거의 문둥병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역병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변을 떠돌며 우리를 약화시키고 파멸시킵니다. 어디를 가나 이것들을 봅니다. 이 역병이 미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중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이기심, 탐욕, 방종, 잔인성 및 범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에 중독되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며 서서히 그러나 결국엔 긍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부정적인 생활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1940년대에 유행하던 노래의 후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라.

긍정적인 것을 붙들고

이도저도 아닌 자와 어울리지 말라.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라”, 조니 머서 노래(ASCAP, 1945년))

당시에도 훌륭한 충고였듯이, 오늘날에도 훌륭한 충고입니다.

지금도 지상 생활을 하기에 매우 좋은 때입니다. 무한한 기

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들도 있는 반면에 가르침을 주는 교사와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자들과 올바른 것을 성공한 결혼 생활과 희생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도움을 주는 친구 등 의로운 분들과 의로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마음 속에 감사하는 태도를 키울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마음이 중한 범죄 행위에 속한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태도는 가장 고결한 미덕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음 찬송가는 언제 들어도 우리의 영을 고취시키고 신앙의 불을 당기며 영감을 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잃은 것을 생각해 낙심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에 네가 놀라라

세상 권위 네 앞길을 막으나

낙심말라 주는 능히 이기리

천사들이 네게 도움 위안을

너의 여행 끝날까지 주리라

(존슨 오트만 2세(1856~1922),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만일 우리가 각자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본다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치는 위험을 기꺼이 택하신 어머니께 영원히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어느 작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당하시는 가운데,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

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복음 19:26~27)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와 사랑을 표하는 성스러운 본보기입니까!

저의 모친께서도 저에게 단순히 경전을 읽어 주시기 보다는 그분의 생활과 행동을 통해 그 "훌륭한 책"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시던 마치 드라마와도 같았던 어머니의 하루하루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안락을 기꺼이 희생하십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힘써 일하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으시며,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시간이 변해도 한결 같습니다.

가끔 저는 선교사로 나가는 아들에게 옷을 사주기 위해 옷가게로 들어가는 부모님들을 보았습니다. 새로 산 옷은 몸에 잘 맞고 새 구두는 단정하게 끈이 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벌의 셔츠와 넥타이도 삽니다. 언젠가 만난 어느 아버지는 저에게 "문슨 형제님, 제 아들을 소개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런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사기 위해 지갑은 텅 비었지만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양복이 낡고 구두가 다 떨어진 것을 보았을 때 눈물이 차올랐으나, 그분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형제님의 얼굴에 있던 그 빛을 저는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장애자였던 아저씨와 연로하신 아주머니와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주일학교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셨는데, 항상 어린이들과 함께 하

시길 좋아하셨으며,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결코 하지 않으셨으며, 평생동안 노동의 가치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께 그러하듯이 마찬가지로 저도 저의 부친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의 가능성과 포부를 형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와 자신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감이 커지고 능력이 향상되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선생님을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요술을 부리듯, 포근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가득하며 성장하고 배우며 상상이 나래를 펼치고 젊음의 기운이 감도는 교실 분위기를 창조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어느 작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라고 말씀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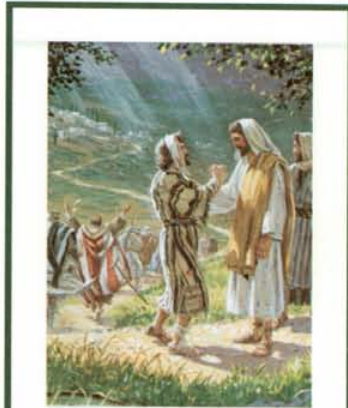


세 분의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저의 역사 선생님이셨던 지 호머 더럼으로, 그 분은 저에게 “과거는 뒤에 있다. 그것으로부터 배워라.”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셨으며, 또한 학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 제 마음의 창이 열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학 교수가셨던 오 프레스톤 로빈슨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미래는 앞에 놓여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 서시면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사랑으로 설득하시던 가르침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노력하도록 용기를 주셨으며,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늘 기억에 남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

느 일요일 아침에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주일학교 회장님이 그 선생님과 함께 오셔서 반원들에게 우리를 가르치고 싶다고 자원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선생님이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루시 게르츠였습니다. 선생님은 아름다웠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으며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분은 반원들에게 각자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신 다음 반원들의 생활 배경 등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유타 주 미드웨이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아름다운 계곡에 대해 묘사하실 때에는 그 아름다움을 너무 생생하게 설명하셔서 모두가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푸른 들판을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결코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거칠고 시끄럽게 굴어서 선생님의 아름다운 공과를 망친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현실은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경전을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선생님은 제자들의
가능성과 포부를
형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와
자신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다윗, 야곱, 니파이, 주 예수 그리스도 등에 대해 익숙해졌으며,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하였고 태도도 발전하였으며, 루시 게르츠 자매님에 대한 사랑도 한없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큰 파티를 열기 위해 동전을 모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게르츠 자매님은 계획의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소년 소녀였으므로 마음 속으로 모여진 돈을 빵과 과자와 파이, 아이스크림 등으로 환산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드문 기회였습니다. 전에는 어떤 선생님도 그와 같은 모임을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으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파티를 위한 목표도 성취되었고 반원들도 발전했으며, 훌륭한 영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배우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매일 친절과 존경을 보임으로써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충만하였습니다.

반원들 모두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반 한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발표하시던 1월의 그 슬픈 아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는 빌리 데븐포츠가 당한 큰 슬픔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날 주일 공과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루시 게르츠 선생님은 잘 준비된 공과를 가르치신 후 빌리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당시는 경제 공황기였으며, 돈이 무척 귀할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한쪽 눈을 찡긋하시고 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티 기금을 가져다 우리의 사랑의 표시로 데븐포츠 가족에게 주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의견에 만장 일치로 동의했으며 동

전을 하나하나 세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적은 무리가 세 블록 떨어져 있는 시가지를 걸어가서 빌리의 집에 들어가 빌리와 그의 형과 누나들 그리고 빌리 아버지께 인사를 하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빌리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파티 기금이 든 하얀 봉투가 선생님의 섬세한 손에서 슬픔에 찬 빌리 아버지의 가난한 손으로 건네질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에 어리던 눈물 또한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예배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으며 기쁨이 충만하였고 이해력이 깊어졌습니다. 이 작은 친절 한 행위로 인해 우리는 더욱 하나로 뭉쳐졌으며, 이 경험을 통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축복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월은 우수와 같이 흘러갔고, 옛날의 그 예배당은 산업 사회의 희생물이 되어 사라져 버렸지만, 영감받은 진리의 선생님의 인도 아래 배우고 웃고 성장했던 당시의 소년 소녀들은 선생님의 사랑이나 그분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옛날에 우리가 즐겨 불렀던—
어서 오라 주일 아침 모든 근심 잊고서

안식의 날 기도의 날 어서 모두 모이라.
 주일학교 참석하면 선생님이 반기고
 주의 황금률 가지고 수고하여 가르치네
 (윌리엄 윌레스(1814~1890), "어서 오라 주일 아침", 찬송가, 150장)

—라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루시 게르츠 자매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루시를 사랑했고, 루시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네 번째로 친구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배우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매일 친절과 존경을 보임으로써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친구라는 말을 경의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한복음 15:14)고 하셨습니다.

참다운 친구는 우리의 모난 점을 참아주며, 우리의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름난 스카우트 단원이었던 오스카 벤슨은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다니며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와 인터뷰를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가 보고하기를 이들 중 125명은 살아오는 동안 훌륭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저는 참다운 우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잭 헤프워스와 저는 당시 10대 소년들로 이웃에 살았는데, 어느 날 오후 저는 잭이 보도를 따라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 보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잭은 감정이 격해 쉰 목소리로 더듬거리면서 "뚝, 공군에 있는 나의 형 조우가 공중전에서 전사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잭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즉시 나와 함께 나누어 야겠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친구에게는 언제라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나

타내 보입니다.

국가와 가족을 위해 명예롭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른 그 큰 희생에 대한 감사를 단지 현충일이나 군대의 행진시 또는 장식된 무덤 앞에서만 느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우리는 이곳에 있는가? 이 생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선교사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가라 너희 영광의 사자
 달려라 너희 하늘의 대사
 나가 기쁜 소식 전하라
 영광의 천사 하늘을 날으니
 크고 위대하여라 크고 위대하여라
 하늘 소식 가져온 영광의 천사
 (존 테일러(1808~1887), "가라 너 영광의 사자", 영문 찬송가, 262장)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담한 자를 일으키시고 죄인을 구하셨습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이처럼 홀로 이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의심하고 한 제자는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옆구리를 찔렀고, 성난 군중들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저들을 동정하시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라고 드린 기도도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아마도 자신의 지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나고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감사라는 거룩한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누가복음 9:58)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은 주님이 거절당한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표현이 아닙니다. 첫 번째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맞이할 것을 권유하십니다.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절고를 아는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영광의 왕, 이 만군의 주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마태복음 4:19)고 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누가복음 10:37)고 가르치셨으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한복음 14:15)고 간청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감사라는 거룩한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활 가운데 그 놀라운 미덕인 감사의 태도를 보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마음 속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를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2. 다음 사항들에 감사를 포함시다.

- 어머니
- 아버지
- 선생님
- 친구들
- 조국
-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3. 주님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에게 감사의 선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벤과 함께 읽

시간은 늦었고 해야 할 일은 많이 쌓여 있는데 어린 남동생이 책을 읽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도 내가 했던 것처럼 하고 싶어할지 모른다.

태미 먼로
그림: 로저 마르크스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머리를 푹 파묻자 손가락 사이로 펜이 스프르미끄러져 나갔다.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신음소리를 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오후 8시 45분. 나는 9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이제까지 매달리던 수학 문제를 보자 눈물이 났다. 나는 너무 지쳤다. 머리도 아팠고 온몸이 다 아팠지만 오늘밤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수학을 끝내려면 최소한 1시간은 더 걸릴 것이다. 그리고 나면 내일 있을 연극 총연습을 위해 내가 맡은 대사를 외어야 한다. 영어 숙제는 이틀 안에 끝내야 하는데 나는 아직 그것을 시작도 못했다. 게다가 다음날은 피아노 레슨이 있는데 둘란부인은 틀림없이 내가 이번 주에 해야 할 것을 제대로 연습하지 못한 것에 기분이 상할 것이다.

“태미 누나” 가냘픈 목소리 때문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나는 화가 나서 문쪽을 돌아보았다.

“벤, 넌 왜 아직도 안자니?” 나는 남동생에게 투명스럽게 말했다.

6살된 벤은 기분 좋게 종종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와서 내 무릎에 앉았다.

“피곤하지 않아.” 벤은 천진난만하게 말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팔로 벤을 안아주었다. 벤에게 오래 화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태미 누나, 이야기책 읽어줘.” 벤이 간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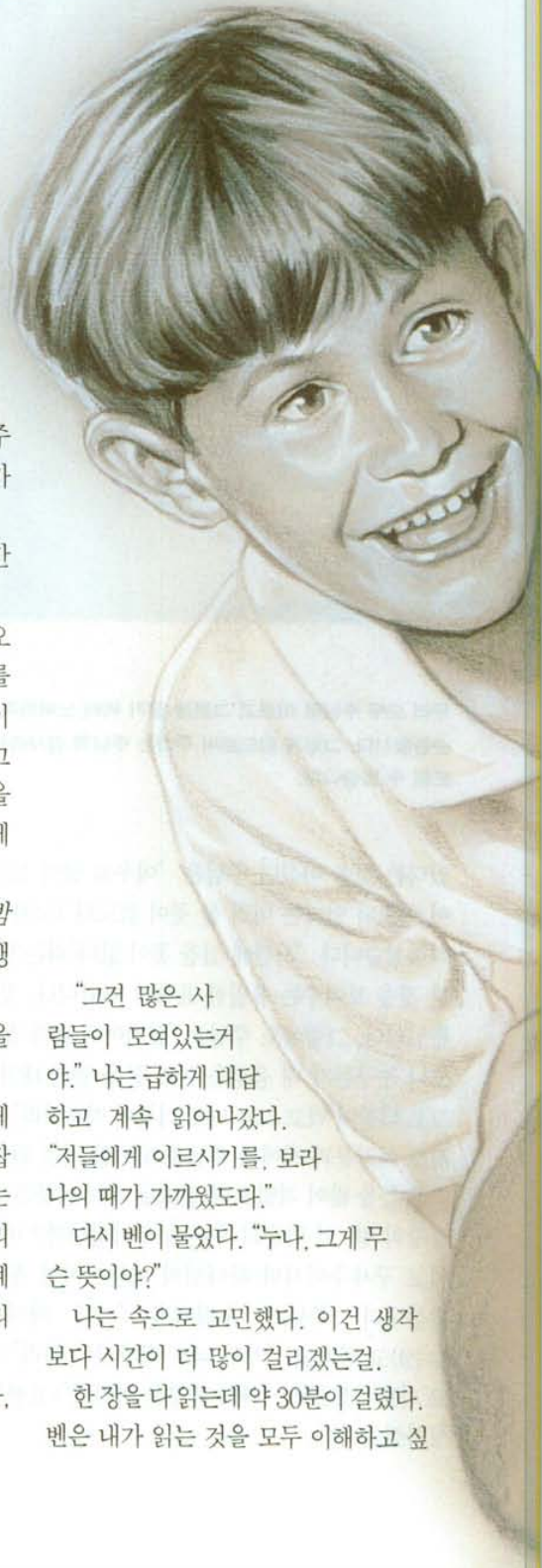
나는 “벤, 난 정말 읽어주고 싶지만 오늘밤은 그럴 수 없어.”라고 말했다.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걱정들에 다시 생각이 쏠렸다. 그러나 벤의 실망한 표정을 보고 나는 핑계를 대는 것을 멈췄으며 죄책감을 느꼈다. 침실 바닥에 있는 내 경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더 곤혹스러움을 느끼면서 오늘밤에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더 있군 하고 생각했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벤을 바닥에 앉히고 물문경을 집어들었다.

“벤, 경전 이야기 좋아하지?” 내 물음에 벤은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고 귀를 기울였다. 세미나리 독서 과제는 니파이삼서 17장이었으므로 나는 재빨리 그 부분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보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나서 다시 무리를 둘러보시며...”

벤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태미 누나, 무리가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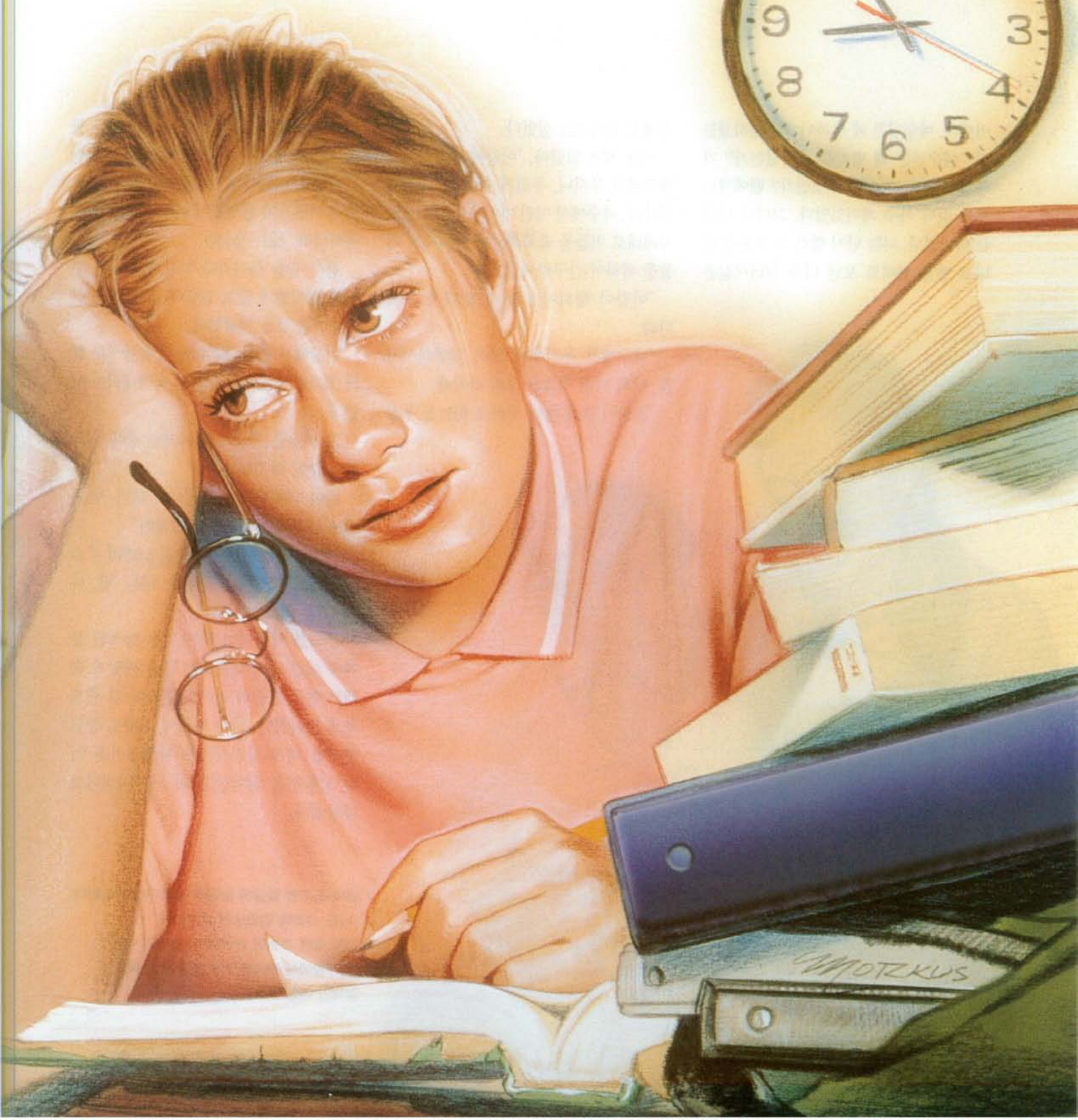
“그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거야.” 나는 급하게 대답하고 계속 읽어나갔다.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나의 때가 가까웠도다.”

다시 벤이 물었다. “누나,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속으로 고민했다. 이건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는걸.

한 장을 다 읽는데 약 30분이 걸렸다. 벤은 내가 읽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싶

으면서





어했다. 예수님은 왜 니파이에게 명하셨는
가? 예수님은 왜 병자를 고치셨는가? 기
록할 수 없는 언어는 무엇인가? 벤에게는
모든 것이 아주 재미있었다. 그러나 내게
는 아니었다. 나는 단지 빨리 그 부분을 끝
내고 벤을 침대로 보낸 다음 산더미같은

숙제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계속 읽었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시니, 무리가 이를 보고 증거
하니라.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
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다시 우시
더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
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

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
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 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
복하더라." (21~24절)

잠시 숨을 돌이키다가 갑자기 나는 한
번도 방해받지 않고 단숨에 네 구절을 읽
어내려간 것을 깨달았다.

이상해서 벤을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벤
의 조그만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
었다.

그 이유를 궁금하게 여기는 중에 나와
벤의 눈이 마주쳤다.

벤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태미 누나,
나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았겠어."

갑자기 눈물이 솟구치는걸 느끼며 부끄
러움으로 몸둘 바를 몰랐다. 나는 "벤, 나
도 그래." 하고 속삭였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영적인 문
제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것을 깨닫자 숙
제와 연극 연습과 피아노 연습이 덜 중요
하게 느껴졌다. 나는 무엇이 진짜로 중요
한지를 내게 상기시켜준 사랑스러운 어
린 남동생을 끌어안고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했다.

벤의 조그만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았겠어."

그의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갑자기 나는
내 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는
영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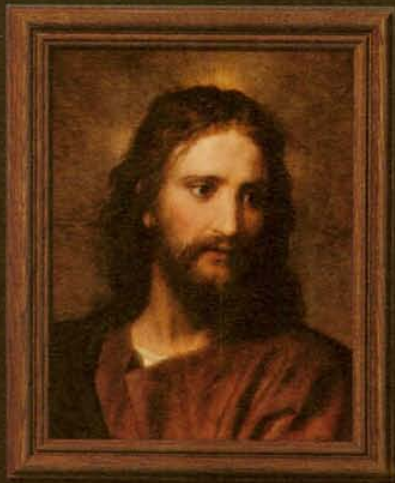


올은 메시지

그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12; 말라기 4:5~6 참조)



오시십이 어린이

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1999년 8월 17일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육 주간

엄격한 모임에서 하신 말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과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곳과 기타 다른 곳에 모여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갈증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을 말씀에 관해 기도드리는 가운데 3주만 있으면 제가 일흔 다섯 번째 생일을 맞아 중년을 훨씬 웃도는 나이가 된다는 데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저는 50년 이상 교사로 지내 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배웠던 것 중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때로 인생이 우리가 알기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렇게 어렵게 얻은 교훈들은 가장 가치있는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중년이 넘는 나이가 되면서 저는 배움에 관해 그 밖의 다른 것도 배웠습니다. 어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대화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자: "선생님, 제 기억력이 문제입니다. 책을 읽어도 그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 방에 들어갔는지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의사: "그렇군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환자: "무슨 증상으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곤란을 겪었죠?"

만일 이 이야기가 재미있다면 여러분은 60이 안되었거나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가르침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은 젊었을 때만큼 잘 배우고 기억하거나 공부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언자 엘마가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엘마서 37:35)라고 권고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성구와 시구를 기억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두 번 반복하면 그것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해보았거나 특히 적어보았다면 그것은 제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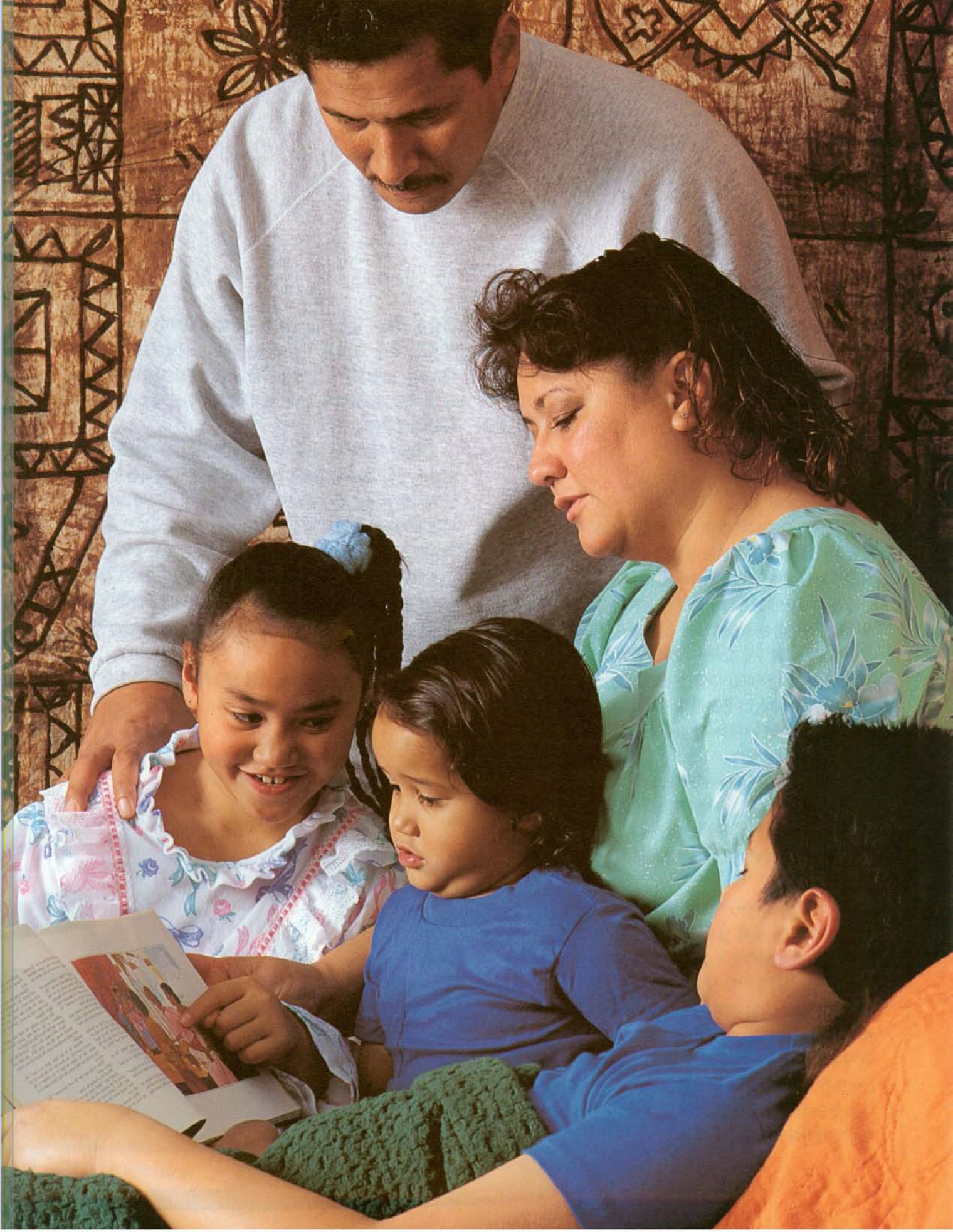
청소년기는 무언가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전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져왔던 이유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과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 첫번째 책임을 부모들에게 주셨으며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 시온 ...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주님은 자녀를 가르칠 주된 책임을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68:25)

청소년을 가르치는 것은 이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가정에 먼저 책임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교회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지식을 쌓아감

제가 알게 된 또다른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배웠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쌓은 지식은 필요한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들이 감독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독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에 대해 몹시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차대회에서 감독에 대해 말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지난 5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르칠 내용에 꼭 맞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연차대회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다시 그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오래 전 저는 에머리 화이트와 스테이크 고등평의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에머리는 10년간 시골 지역에서 하퍼 워드 감독을 지냈습니다. 그의 아내 루실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이웃 사람이 찾아와 루실에게 에머리가 집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루실은 그가 밖에서 밭을 갈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새벽 밭을 지나가다 에머리가 키우는 말들이 반쯤 갈다 남은 밭고랑에 고삐를 쟁기 위에 축 늘어뜨린 채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머리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웃

사람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다시 밭을 지나가다가 말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심상찮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넘어 밭을 지나 말들에게로 갔습니다. 에머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에머리의 집으로 가 루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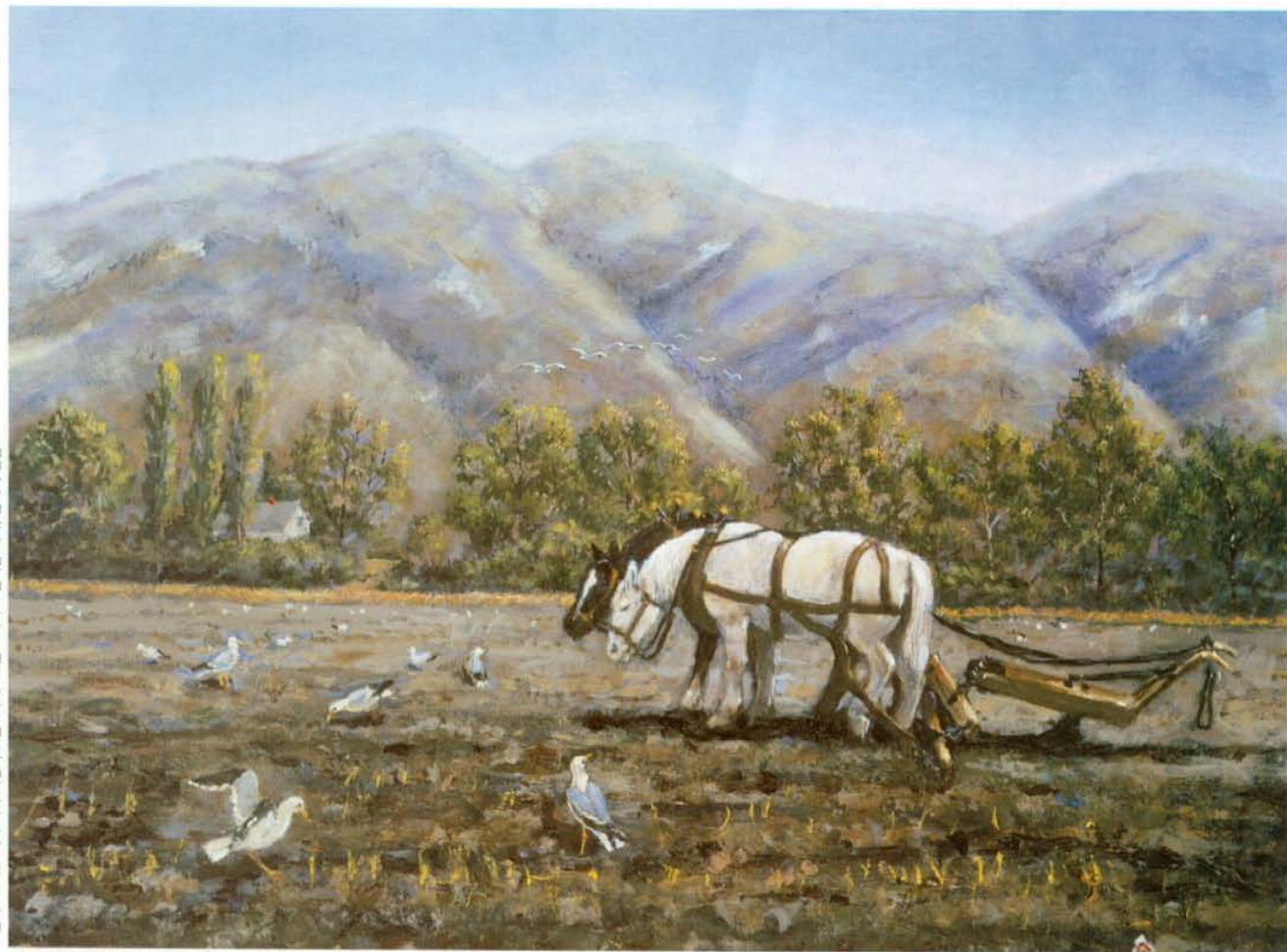
“루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놀라지 마세요.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감독님을 부르러 온 것일 테니까요.’

“몇 시간 동안 밭에 서있던 말들은 교회의 감독과 그 곁을 지키는 보좌들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감독과 그 보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들은 말들을 다 갈지 않은 밭고랑에 그대로 세워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갑니다.” (“감독과 그의 보좌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71쪽)

저는 전에 말씀에서 그 경험을 인용한 적이 없었고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

다. 저는 연차대회에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기 전에 그 일을 제 마





몇 시간 동안 밭에 서있던 말들은 교회의 감독과 그 곁을 지키는 보좌들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음 속에 새겨놓고 싶어서 에머리 화이트의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살았던 집에서 저를 만나 그녀의 부친이 그날 갖고 있던 밭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 중 하나가 일요일 아침 일찍 저를 그곳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곳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들판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새로 쟁기질되어 있었고 갈매기들이 새로 갈아진 땅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자 영감을 받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외웠던 경전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것은 경전의 진리를 다시 확증해주었습니다

다. 제게는 이런일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미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너희 마음 속에 생명의 말씀을 쌓아두라. 그리하면 필요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분량대로 말해야 할 말을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8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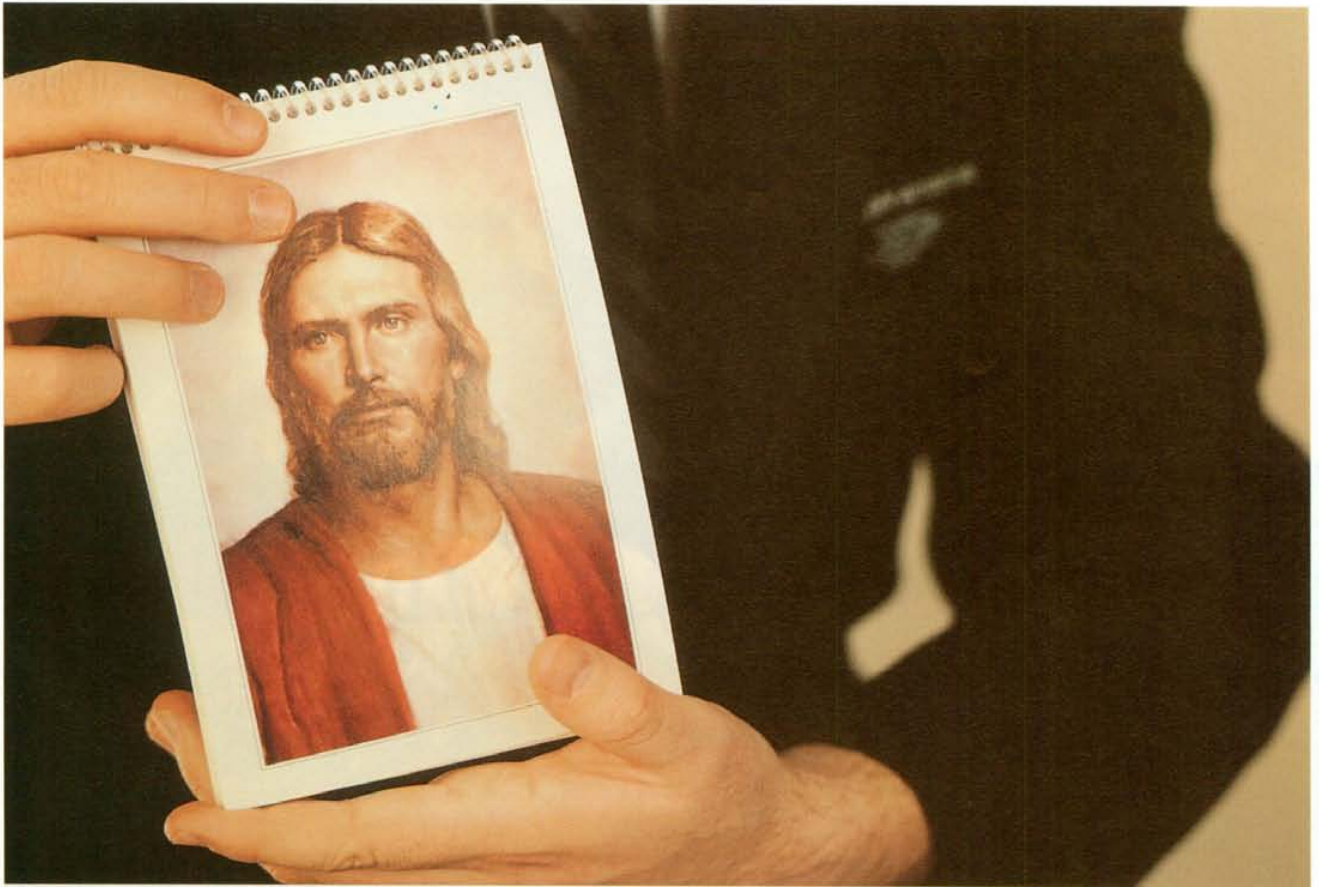
지식을 쌓아두는 사람들에게 주는 한 가지 약속도 잇따라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이어 너희를 감싸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그것은 제게 훌륭한 교훈이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림 그리기와 나무 조각을 좀 했습니다. 주로 혼자서 배웠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저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인생에 관해 배웠던 것들과 소년 시절에 나무 조각과 그림에 대해 배웠던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휴식의 일환으로 나무 조각을 했습니



선교사들은 개종자가 많이 없을 때조차도 그들은 가르침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교회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다. 새를 한 마리 조각했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조각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죠?"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만약 알게 되면 조각을 그만두게 될겁니다."

손으로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창조의 경이로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영감이 흘러 넘치곤 했습니다. 저는 나무를 조각하면서 저의 말씀도 조각했습니다.

조각을 하면 저는 편안해집니다.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면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또 다른 조각을 시작하는게 좋겠어요."

제가 기억력이 조금만 좋아진다면 그 조각품들을 가리키며 그것이 어느 말씀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통해 수확함

저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조각할 수 없습니다. 3초점 안경

을 쓰고, 어린 시절의 소아마비로 약간 뻣뻣해진 손가락 관절을 가진 저에게는 너무 섬세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름에 대해 증가하는 압박감은 제가 조각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는 일 두 가지 모두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각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밭에서 기다리고 서 있던 그 말들의 이미지가 항상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삐를 쥘 위로 늘어뜨린 채 밭에 서있는 감독의 말들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지 않은지가 9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특별한 재능과 영감을 지닌 두 친구가 제가 감독의 말들을 그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으므로 저는 7월에 여행을 끝내자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두 친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제가 배운 것들은 저의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두 아들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아들은 쟁기질한 그 밭의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제가 나무든 캔버스든 말씀이든 어떤 것을 묘사할 때 항상 아주 정확하게 해내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서 그들이 어릴 때 배웠던 것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제 그림에 짝이 되도록 감독의 말들을 청동으로 조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많은 시간을 보람있게 보냈습니다.

제 아들은 우리 헛간에서 50년 넘게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걸려있던 한 쌍의 낡은 마구를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그들을 집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는 한 세트의 마구를 아주 참을성 있는 승마용 말 위에 걸쳤습니다. 그 말은 제 아들이 마구를 알맞은 순서로 배치하고 세부적인 스케치를 하는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웃에 사는 분은 옛날 쟁기들을 여러 점 수집해 왔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그 시대에 쓰였던 쟁기가 있었는데 제 아들은 그것도 스케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에게 청소년기에 가르쳤던 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다른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부모로서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 가르쳐주었던 것을 계발시켜 왔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우리의 날들이 연장된다면 우리는 두 번째 수확—즉 우리의 손자녀들—을 거둘 것이며 또 아마 세 번째 수확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자는 재능을 다시 깨움

저는 또 다른 것도 다시 배웠습니다. 한번은 소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윌라드 봉우리를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이드신 분들이 그 봉우리를 대관장단으로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배경으로 서있는 이 세 개의 거대하고 견고한 봉우리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9년 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윌라드 봉우리로 데려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그들이 저서 명암이 뚜렷할 때 두 번째로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해가 지난 후 저는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뒀던 재능을 다시 일깨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저를 충동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계속 하게! 중도에 그만 두는 사람들에 끼이지 않으려거든.”



이것은 인생의 평범한 경험에서 얻은 또 다른 배움의 원리입니다.

저는 단지 제 아내가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중단하지 않았던 것이 기쁩니다. 이제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언젠가 또다른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비활동적이었던 사람이 다시 양의 우리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잠들어는 있지만 실제로 잃어버린 것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노력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명의 친구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평범한 경험에서 얻은 또다른 배움의 원리입니다.

감독의 말 그림은 곧 완성될 것입니다. 제 아들의 조각도 주조소에서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제 아들의 조각은 제 그림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젊은 정신과 손가락은 제 것보다 더 잘 움직입니다.

노년이 되면 나이든 뼈는 쉽게 굽혀지지 않으며 관절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60대 중반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구두끈을 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마루바닥이 더 낮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금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엘마서 37:35)는 그 교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리



사진 촬영: 로버트 케시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보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배우는 것을 통해 얻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십니까?

와 성약 93:36)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93:40)

성신의 거룩한 은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불과 여덟 살일 때 주어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26)

가르치시고와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보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배우는 것을 통해 얻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십니까?

영적인 기억을 사용함

세상적인 지식을 얻는 것과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날에 그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전세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에 있어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출생 이전의 기억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감수성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인 워즈워스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을 때 전세에 관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한낱 수면이고 망각일뿐
우리와 함께 소생하는 인생의 별인 영혼은.*

*어디엔가 거하던 곳,
먼 곳으로부터 오는 것,
완전한 망각도 아닌,
완전한 별거승이도 아닌,
영광의 구름 옷자락을 끌며
우리의 분향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불멸의 송가" 중에서)*

저는 그 싯구들을 외우고 있는데 그것은 대학 시절 영어 시간에 외웠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생의 평범한 사건을 통해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간증이 확고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간증은 그런 식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감동과 고요한 속삭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본질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기이한 사건들을 “정도를 지나쳐”(아곱서

4:14)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에 훨씬 못 미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망각의 장막이 거두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또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암시를 연습합니다. 그러한 기억이나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한 계시는 우리가 가르칠 때 옵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1897~1988)은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우기 때문에 제가 언제 성신의 영향력 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지를 항상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파송된 자가 아니요, 나의 영의 권능으로 너희 손에 맡긴 것을 인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파송되었느니라.

"다만 너희는 하늘에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능력을 받아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이 가르칠 수 있으리라."(교리와 성약 43:15~16)

선교사들이 개종자들을 많이 얻지 못할 때조차도 그들과 교회에는 영적인 권세가 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배우기 때문입니다.

집사 정원희 회장은 평의회에 참석해서 동료 집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07:85 참조.) 장로 정원희 회장은 성약에 따라 그의 정원회 회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07:89 참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디모데후서 2:2)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르침이 어떻게 그 자체로 보상이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여덟 마디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로마서 2:21~22)

기꺼이 배우는 자가 됨

어느날 저는 예전에 자주 그랬듯이 사과의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이전에 제가 했던 말씀 때문에 오랫동안 저에 대해 얼마나 분개하고 노여워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용서하는 것에 신속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용서를 베푸는 두 가지 일에서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경전에는 예언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니파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한지]"(요한복음 6:60; 니파이일서 16:2; 니파이서 9:40; 힐라맨서 14:10 참조.)를 나타내주는 성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거스르고 교사에게 분개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많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팔복 중 하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태복음 5:11~12; 누가복음 21:12; 요한복음 15:20; 니파이삼서 12:11~12 참조.)

전형적으로 그러한 사과의 편지에는 "저는 형제님이 왜 저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2:21)

그렇게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필요성을 느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고민이 정리된 후에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통찰력과 영감과 이해력이 찾아옵니다. 마침내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마침내 어느 자매님은 왜 우리가 그토록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봉사도 비이기적인 모성애를 통해 오는 지고한 순화와 같을 수는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가 지적 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순화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적절한 시기에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자녀를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 오는 영원한 미덕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가르침도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만큼 또는 그보다 더 영적으로 가치있거나 더 숭고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가르치기 때문에 경전 공부에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적은 보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랜트 뱅거터 부장은 브라질에 있는 그의 선교 부를 여행하고 있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과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뱅거터 자매님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 저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남편처럼 경전에 정통하게 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해외 왕국에 가게 될까요?”

스미스 대관장님은 잠시 동안 진지하게 생각한 후 “자매님이 남편에게 파이를 구워주신다면 가게 될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자녀를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순화되는 만큼 순화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이해한다면 아내 없이는 승영할 수 없음을 압니다.(교리와 성약 131:1~4; 132:19~21 참조.) 그의 최

고의 바람은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 세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에 대한 축복

이제 다음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교사)에게

미치리니, 너희(교사, 어머니, 아버지)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88:78)

이 약속은 학생들에게보다 교사들에게 주는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자녀나 초등학교, 주일학교, 청년 청년, 신권회, 세미나리, 상호부조회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미치리니”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늘의 일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국내의 일과 외국의 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국민간의 갈등, 지상에 임할 심판 및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되리니.

“이는 내가 [가르치는] 너희를 부른 소명과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게 하려고 또다시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모든 일에 준비를 갖추어 두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8:79~80)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디모데후서 3:1)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디모데후서 3:13)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



어떠한 가르침도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숭고하지 않습니다.

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체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4~15)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와) ... 같이”(요한일서 3:7) 되도록 명함받았습니다.

그분은 어린이들의 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태복음 19:14)고 가르치셨습니다.

니파이인들 가운데서 베푸신 구세주의 성역의 기사에서 우리는 어쩌면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더 그분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명하시니,

“저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 와 그 둘레에 앉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한가운데 서시었고 어린아이들을 모두 데려올 때까지 우리가 길을 비켜 주었으며...

“... 예수께서 우시니, 우리가 이를 보고 증거하니라.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다시 우시더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그림: 엘 피슨, 그리스도와 동মন경의 백성들.

니파이인들 가운데서 베푸신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성역의 기사에서 우리는 어쩌면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더 그분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니파이삼서 17:21)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이들을 에워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이를 증거하였고, 저들이 친히 보고 들었으며 증거한 바가 참됨을 알았으며”(니파이삼서 17:11~12, 21~25)

저는 그 기록이 참됨을 압니다. 저는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간증을 키움

테머러 리턴 베일리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

간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듯, 여러분의 간증도 마찬가지이다. 급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시키는 데 이 개념을 시도해 본다.

☉ 신입 회원이나 저활동 회원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의 간증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여러분을 고양시켜 주는 경전 이야기를 읽는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받은 영감을 이용하여 시나 가사를 짓든지 또는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린다. 또는 친구에게 간증을 담은 편지를 써서 보낸다.

☉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시킨다. 봉사 활동은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 마음을 고양시켜 줄 여가 활동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고전 소설을 읽든가, 음악회에 참석하든가 또는 박물관을 방문한다. (신앙개조 1: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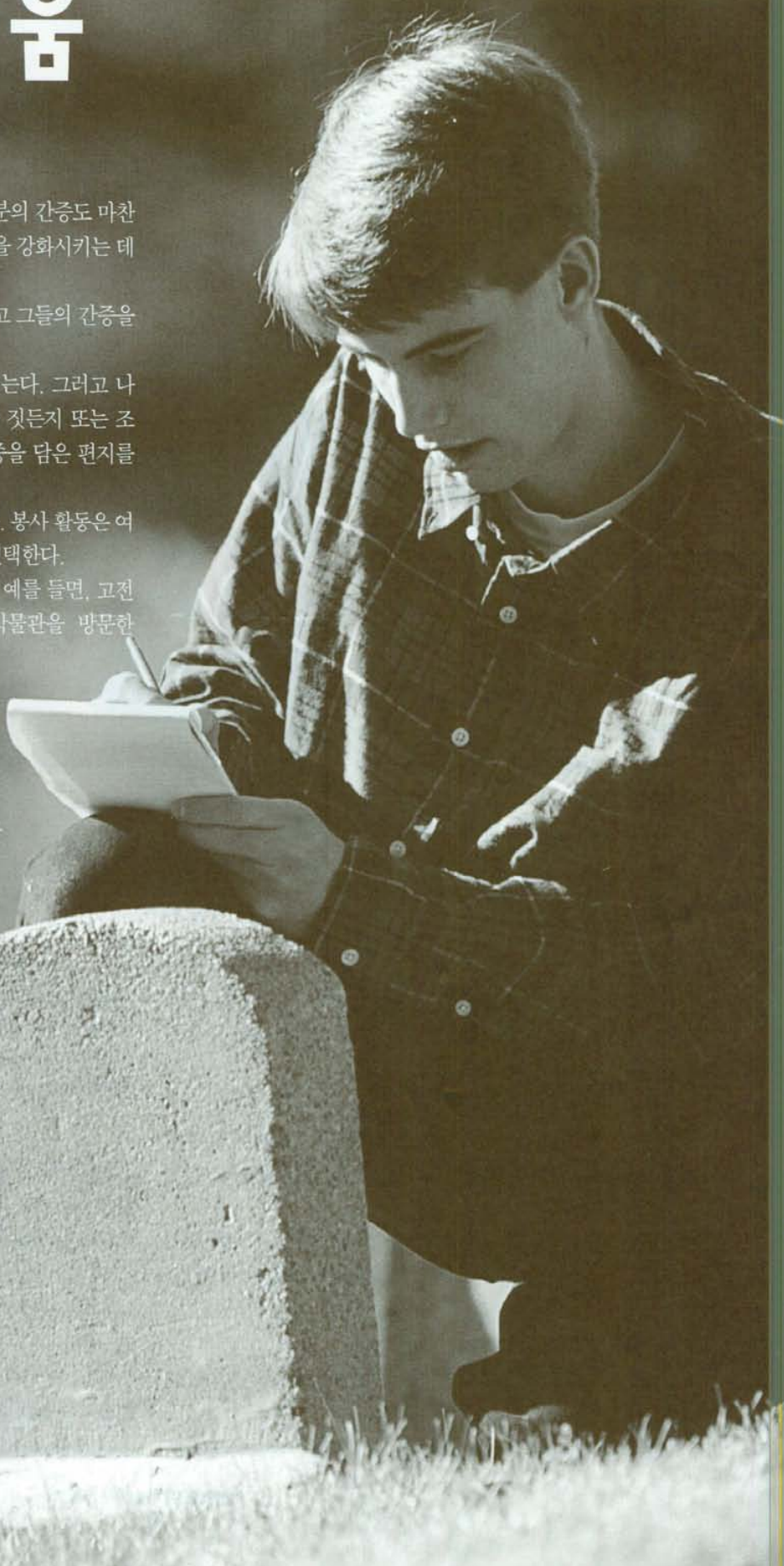
☉ 성찬식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또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또는 지도자와 함께 간증을 나눈다. 또한 여러분의 일지에도 간증을 기록한다.

☉ 최근에 있었던 세미나리 공과나 주일학교 공과 내용을 가정의 밤 때 나눈다.

☉ 리아호나 잡지의 지난 호들을 꺼내, 여러분이 평소 읽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 못 읽었던 기사들을 읽는다.

☉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봉사 활동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돕는다.

☉ 친구에게 물문경을 전해 준다. □



영원히 지속될 사랑을 키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결혼생활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것이므로 보살핌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셨다. (“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감”, 리 아호나, 1999년 1월호, 99쪽)

“사랑은 친절을 통해 성장한다”

힝클리 대관장이 말씀하신 노력은 평범한 부부 관계를 특별한 부부 관계로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예의 바르고 친절한 행동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1873~1970)은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영원한 구애의 시작이 아니라 종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육신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친절과 예절이라는 음식을 주식으로 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Man May Know for Himself: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가르침*, 클레어 미들미스 편집(1967년), 289쪽)

부부 관계의 심각성은 흔히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순간적인 무례한 언행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주 되풀이 될 수 있다. 원만하지 않은 의사 소통은 부부 사이를 갈라 놓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은 불만들이 쌓여서는 마침내 분노와 학대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러나 순간 순간마다 사랑을 키우면 결국은 영원한 사랑으로 발전한다. 부부의 사랑을 키울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단순히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말을 수시로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부부가 매일 함께 기도하는 일이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같은 관심사에 대한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고자 노력할 때, 그들의 마음은 성신의 영향력에 대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영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채워 주는 것이다. (모로나에서 7:47~48 참조)

우리의 첫번째 관심사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과 태도는 여러가지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이기심이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기심은 가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 근원이 [됩니다] ... 이기심은 사랑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 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73쪽)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이기심은 튼튼한 애정 관계를 구축해 준다. 렉스 이. 리전 브리감영 대학교 총장은 사망하기 몇 해 전, 암 치료를 위

해 5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당시 그의 아내 재닛트는 거의 매일같이 남편의 곁에 있었다. 리 총장이 “병환 때문에 그가 제일 좋아하는 책—미 연방 대법원 판례—조차 읽을 수 없었을 때, 재닛트는 그를 위하여 큰 음성으로 책을 읽어 주었고 책을 읽으면서 남편의 맨발을 다정스럽게 쓰다듬어 주기도 했다. 그와 같은 사랑의 행동들이 무수히 되풀이 되면서 그 부부의 애정은 더욱 깊어졌다. 리 총장은 재닛트가 전에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 부부간의 사랑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깊이와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시/마리 케이 하렌 공동 집필, “걱정을 자제함”, *앤사인*, 1994년 2월호, 17쪽)

힝클리 대관장은 부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의 위안과 행복을 최우선 관심사로 삼고, 다른 개인적인 관심사들이 이 고상한 목표를 위해 승화시킨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졸업생들이 예언자로부터 과제를 받음”, *처치 뉴스*, 1995년 5월 6일, 11쪽) □



감사에 찬 마음

“여호와께 감사 ... [함이] 좋으니이다. ...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이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다. ☞ 감사를 하는 것이 왜 그러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의 하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 리아호나(영문), 2000년 5월호, 4쪽) 감사의 영을 지닐 때, 우리는 현세의 모든 도전에 맞서 싸우는 동안에도 하늘에 의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간에—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왜 영화롭게 될 것”인가?(교리와 성약 78:19) 감사로 인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겸손하게 되고 겸손할 때 성신의 속삭임과 성스러운 힘에 민감해지기 때문인가? ☞ 대관장단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말씀하셨듯이 감사의 마음은...”가장 고결한 미덕

☞ 감사에 관한 다음의 기사들에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특히 복음의 축복을 주고 싶어하신다. 우리가 모두 감사에 찬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기원한다.

어느 비오는 날의 감사

줄리에타 아레비안 데 알바레스

그 날은 비가 왔지만 상쾌한 기분이 드는 날이었다. 멕시코에 있는 나의 집에서 네 명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날이었다. 그날 나는 리아호나 잡지를 읽으면서 성신이 함께 하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성신은 나의 삶이 참으로 축복 받은 것임을 일깨워 주었

다.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선교사 2명이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겨우 열일곱 살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바로 얼마 전 이혼한 상태였고 다섯 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다. 당시 나는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져지는 것,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장로들을 집안으로 들었을 때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복음 토론을 듣고는 있었지만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가족들 가운데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침례받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장로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알바레스 장로가 이전에 한번도 내가 들어 본 적이 없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매님께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권유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매님께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매님께서 부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자매님께 알려 준 모든 지식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 봐 주십시오. 자매님은 우리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시겠습니까? ...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두려움? 내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나는 말타고 사냥을 할 수 있었다. 누가 나에게 방울뱀을 내 목에 둘러보라고 한다면 능히 그렇게 할 수

도 있을 사람이었다.

나는 “장로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일지”고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받아들인 선교사들의 제안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왜 선교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지의 존재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사실은 나는 그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다음 날 나는 모든 가족들이 집을 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옥상으로 올라갔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고는 기도를 중지했다. 갑자기 불어온 세찬 바람에 상처를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의

감각은 온통 들러오는 소리에 쏠렸고, 감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나는 완전히 홀로 있음을 느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어떤 보호를 느꼈다. 용기를 가지고 나는 계속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알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간구하였다. 또한 확신을 달라고 간구했다. 나는 간구하고 또 간구했다.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의심을 가진데 대해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며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알게 되었다.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무릎에 모래와 작은 돌들이 박혀 있었다. 기도를 오랫동안 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틀림없다. 아니,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이 틀림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복음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의로운 남편까지 주셨다. 내 생애의 최대의 축복 몇 가지는 성전에서 우리가 인봉 의식을 받았을 때 받았던 약속들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삶도 순탄하지는 않다. 가족들에게 생활 필수품이 없어 곤란을 느낀 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동반자로서 주님이 계시는 한, 어떠한 문제도 너무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다. 때로는 주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만 한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영원히 감사한다.

버스가 늦게 도착했어요

글쓴이: 티어리 다모이소우 (이 글은 포코너즈에게 전한 말을 티어리 다모이소우가 쓴 기사임)

내가 기다리던 버스는 대체로 정시에 도착했다. 그러나 어느 날(1993년 10월 11일)은 늦게까지 오지 않았다. 나는 프랑스 캐엔에 있는 어느 대학교의 학생으로 수업 시간까지 도착해야만 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었다.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의 젊은 남자가 나의 눈길

을 끌었다. 그들은 특이하게 보였고 각자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분명히 고등학교 학생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수업 시간에 알맞게 도착할 일이 걱정되어 곧 늦는 버스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그때 뜻밖에도 내 뒤에서 “한 마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돌아서 보니 한 젊은 남자가 나를 향해 묻는 것이었다. 그는 특이한 발음으로 프랑스어를 말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의외의 질문에 놀랐고 대답하기를 망설였다. 사실 나는 전부터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다. 결국 나는 무신론자로 스스로 결론 내렸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 젊은 남자와 계속 대화를 가질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에 매우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싶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사랑과 지성을 풍기고 있었다. 그들의 명찰을 보고서야 나는 그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세 사람은 10분 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나는 그들의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 그들이 인생의 의미를 포함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그때 버스는 15분 늦게 도착했다—우리는 다시 만날 날짜

와 시간을 정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복음 토론은 시작되었다. 토론 동안 그 두 장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을 소개했고,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점점 나는 복음원리를 알게 되었고 결국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믿기에 이르렀다.

나의 생활이 전면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우선 부모님들이 나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개선되었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전보다 좋아졌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쉽게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교회에 참석하면서 아무런 가식도 볼 수 없었다. 내가 전에 어디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과 환대가 있을 뿐이었다. 회원들은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 같았다. 교회는 참으로 경이로운 기회의 장이었다.

그러나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나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싶었다. 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 토론을 통해 내가 과오를 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즉 내가 참된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1994년 7월 24일 침례를 받았다.

침례 받기로 한 결정은 지금까지 내가 한 결정 중 최상의 것이었다. 침례받은 후 나는 복음의 축복을 누렸고 훌륭한 와드 회원들과의 우정 증진을 가졌으며 신권도 받았다. 그 밖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의 개종에도 도움을 주었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내가 나의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과 문

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것은 장로님들을 만난 덕택이었다. 장로님들과의 만남이야말로 내 생애의 가장 축복된 만남이었던 것이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느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면 나는 싱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버스가 늦게 온 덕택이었죠.”

내적 평안

개리 피 파브로스

1992년 4월 여름,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 가족은 바탄 반도 상에 있는 바카의 한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게 되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남동생들과 누이들은 해변으로 달려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부모님은 가족이 목을 소형 별장을 찾으러 가셨다.

휠체어에 탄 나는 야자수 그늘 속에 머물러 서늘한 미풍을 쐬고 있었다. 공기를 깊숙이 빨아들여 호흡을 했고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윽고 시선을 망망한 대해로 돌려, 찬란하게 불타오르는 둥그런 태양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해변 모래밭의 사람들은 따뜻한 모래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깔깔 웃는 소리가 멀리 떨어진 곳까지 들려 왔다.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은 갖가지 활동에 여념이 없다. 나는 남동생들이 수영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밖의 다른 곳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제트 스키를 타는 모습이 보였고,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돌진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세상의 아

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우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자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이 갑자기 엄습해 왔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신체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나는 평생 휠체어에 틀어박혀 지내야 한다. 이같이 암울한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했다. 어떤 실제적인 힘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없애려는 것 같았다.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암울한 생각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자 전에 읽은 적이 있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미래의 어느 행복한 날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커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떨 것이며 벵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이사야 35:5~6) 늘 가져왔던 소망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부풀어 올랐다. 나의 가장 큰 소망, 그것은 걷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에 놀라 나는 생각을 멈추었다. 조개를 잡던 어린이들이 젖은 모래를 뒤져 조개를 발견하자 흥분에 찬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의 영은 고양되었고 평온한 느낌으로 충만해졌다. 언젠가는 나도 걷게 될 것이며 사슴같이 떨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자 나는 신체적인 장애와 상관없이 대지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길 수 있었고 이러한 내가 받은 축복에 감사했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나는 머리를 숙여 마음속으로 내

가 지니고 있는 특권에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단지 한 사람 때문에

조지 소브레캐레이 리와곤

복음 선교사들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열 세 살이었다. 당시 나는 필리핀의 다른 소도시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산뜻한 옷차림을 한 두 명의 젊은 남자가 내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랐지만 나는 유니폼 같은 그들의 복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무슨 이유인지 나도 저런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가족들이 있는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께서 어떤 책을 읽고 계셨다. 무슨 책인가 싶어 나는 궁금했다. 어머니도 호기심을 가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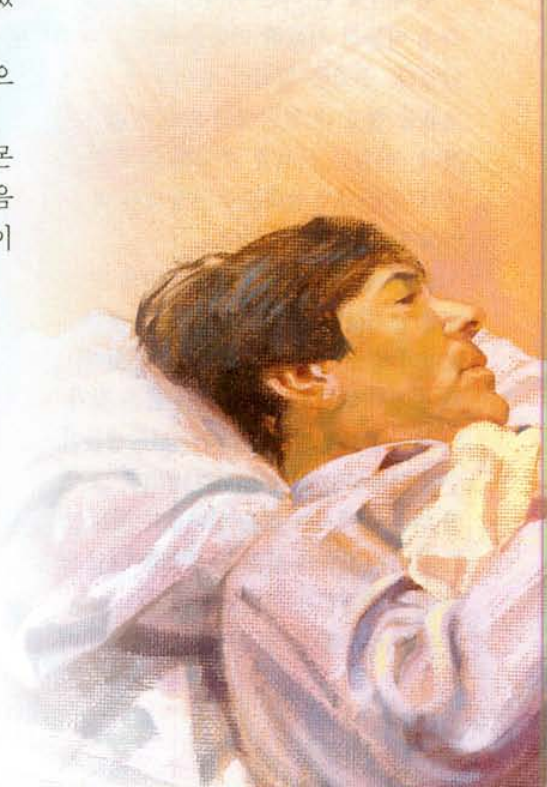
"그게 무슨 책이죠?" 어머니가 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물론 경이오." 아버지는 대답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하셨다. "어떤 이웃이 나에게 한번 읽어 보라고 권한 것이오."

그로부터 2주 후,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우리 집을 방문하고는 자신들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나의 부친에게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은 아버지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는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대화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약 1개월 후, 부친께서 침례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침례 받은 후, 부친은 온 가족이 함께 참된 교회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나에게 집으로 오라는 소식을 보내 오셨다. 나의 모친은 부친의 그런 바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셨다.

이상이 선교사들이 우리 가족 전원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된 내력이다. 우리 가족은 1988년 11월 19일에 모두 침례를 받았다. 그날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특별한 모범

나의 부친은 침례받으시고 나서 1년 후쯤 중병을 앓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 이른 아침, 부친께서 모친을 비롯한 남동생들과 여동생들 그리고 나를 침대가로 불러 모아 유언을 하셨다. 그때 부친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애야, 나는 네가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부친은 숨을 거두셨다.

부친의 유언은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결국 나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전

임 선교사 유니폼을 입고, 필리핀 퀘존시 선교부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부친의 모범에 감사하고, 부친께 관심을 갖고 물문경을 전해 준 그 이웃에게 감사한다. □



위험한 질문

왜 뜨거운 난로를 조금도 만져서는 안 됩니까?
이는 단순한 질문같이 들리지만 실은 위험한 질문이다.

브래드 윌콕스

“**왜** 조금도 해서는 안 됩니까?” 이는 새벽반 세미나리 교사가 성약을 지키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과를 모두 마쳤을 때 데이비드가 한 질문이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떤 심각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맥주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맛만 보려 하는데 왜 한 모금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건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또,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담배를 한 개피만 피우거나 하루 밤만 여자와 보내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교사가 통상적인 답변을 시작하기도 전에 데이비드는 교사가 무슨 말을 할 줄 미리 짐작하고 불쑥 이렇게 말한다. “알콜이 뇌 세포를 죽인다니 담배가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잖니. 그런 말씀은 제발 하지 말아 주세요. 또 에이즈 따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마세요.” 데이비드는 그런 겁주는 이야기들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늘 흡연과 음주를 했어도 지금은 감독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교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데이비드는 다시 처음의 질문을 되풀이한다. “왜 조금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자 실내에 있는 청소년들 역시 거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왜 조금도 해서는 안 되나요?”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자 세미나리 교사는 무언가를 속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교사는 꼭 참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다음,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하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점을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런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성신은 삼위일체의 한 구성원이지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전은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창세기 6:3; 이더서 15:19; 교리와 성약 1:33 참조)

실내는 정숙했다. 그날 한 시간 공과를 끝까지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와 그의 친구들은 교사의 다음 설명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최의 즉각적인 결과는 성령이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담배 한 개피가 암을 유발할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것은 성령과 여러분을 격리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맥주 한 캔이 여러분을 알콜 중독자로 만들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성신이 떠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혼전의 성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제서야 대부분의 반원들은 교사의 설명에 수긍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듯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성령이 떠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겁니까?”

수업은 끝났다. 반원들이 학교에 가야 하므로 교사는 “내일 또 이 토론을 계속하자”고 말한 후 수업을 끝냈다. 그후 그들은 이 토론을 계속했다. 수일 동안 반원들은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학습하였다. 데이비드는 우리가 성령을 잃을 경우, 그 밖의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안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할 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1873~1970)은 인생의 여정을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분주하



고 무서운 도시의 거리를 통행하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어린이는 그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는 동안 안전하다. 그러나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혼동을 일으켜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 어린이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대회 보고, 1928년 10월호, 36~37쪽)

성신의 동반

예언자 몰몬은 사람들이 성령을 동반하기에 더 이상 합당치 못하게 될 때 그들을 집어 삼킬 공허감과 고독에 대해 묘사했다. 몰몬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홀로 남겨졌느니라.(몰몬서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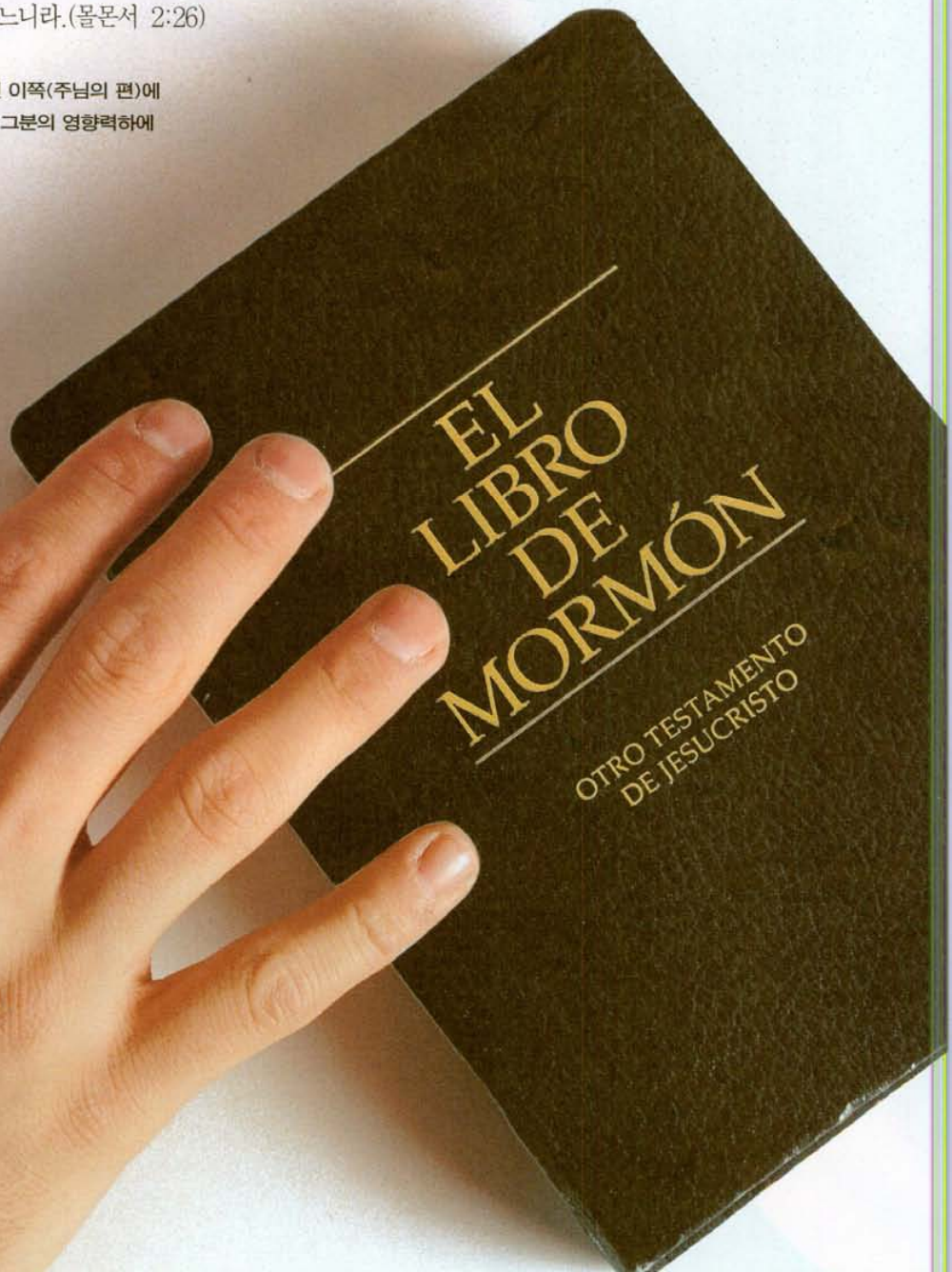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왕의 일부

"네가 경계선 이쪽(주님의 편)에 머물면 너는 그분의 영향력하에 있게 된다."

(주: 한글판 몰몬경에는 이 부분의 번역문이 누락되어 있음) 어떤 청년은 이와 같이 말했다. "성령을 잃을 때 저는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느껴요.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도 역시 고립감을 느껴요."

분별력

조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1870~1951)의 조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주님의 영역



과 악마의 영역 사이에는 명확하게 설정된 경계선이 있다. 네가 주님의 편에 머물면 너는 그분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그릇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악마의 편으로 한 발짝이라도 건너간다면 그 순간 너는 유혹자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혹자가 성공할 경우, 너는 주님의 영을 잃었기 때문에 제대로 생각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눔(1948년 판): 프레스턴 니블리 선집, 42~43쪽)

청소년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감독에게 토로할 때에는 그것은 명백히 분별력을 상실한 증거이다. “전 이제 틀렸어요, 더 이상 해보았자 소용없어요”, “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사랑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합당치 않아서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힘

몰몬은 자신의 백성에 관해 이렇게 기술하였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지라. … 우리는 … 연약하여졌느니라.”(몰몬서 2:26) 이와 관련해서 어떤 청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죄를 지으면 유혹에 저항하는 힘이 크게 감소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떠한 일에도 저는 자제력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영적으로 너무나 약해졌어요.”

평안

내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시절에 모친은 언제나 에이브러햄 링컨의 다음 말을 인용하셨다. “나는 내가 선을 행할 때 선함을 느낀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선함을 느끼지 못한다.”(“리처드 에반스의 인용 말씀책”(1971년), 207쪽) 청소년들의 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릇된 일을 하면서 의로움을 느낄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소책자, 4쪽) 내가 몰몬경에 약속되어 있는 마음의 내적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이 문구가 자주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모사이야서 4:3 참조)

기쁨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르기를 “매우 재미있다” 또는 “매우 유쾌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또는 기쁨)을 맛보는 것은 아니다. 경전은 죄가 결코 재미있거나 유

쾌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지 않고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엘마서 41:10) 나는 로마서 14장 17절을 무척 좋아한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시간

나는, 십대 때 심각한 문제로 인해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을 뻔했던 어떤 선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제가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은 죄를 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그 죄가 중죄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더 후회되는 것은 그 동안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동안 너무나 뒤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저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저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로저 형제는 그의 세미나리 학생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우리에게는 저마다 일정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낭비하고 싶은 것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단 하루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악마는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쓴다. 악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은 없다고 믿게 한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없다고 믿게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확신시키려는 사탄을 무감각하게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

데이비드가 “왜 조금도 해서는 안 되느냐”고 질문했을 때, 세미나리 반원들은 거의 모두가 기쁘게 생각했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데이비드와 그의 친구들은 어떤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한 학생은 그것을 요약하여 “단지 사소한 죄인데, 왜 범해서는 안 됩니까?”라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나는 “뜨거운 난로를 왜 조금도 만져서는 안 되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물론 결국 화상이 치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 많이 따르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것을 택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한 동안은 성령 없이 지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 그 결과는 성신의 동반, 분별력, 힘, 안전, 평안, 기쁨, 시간 등을 상실함으로써 오는 고통과 고뇌인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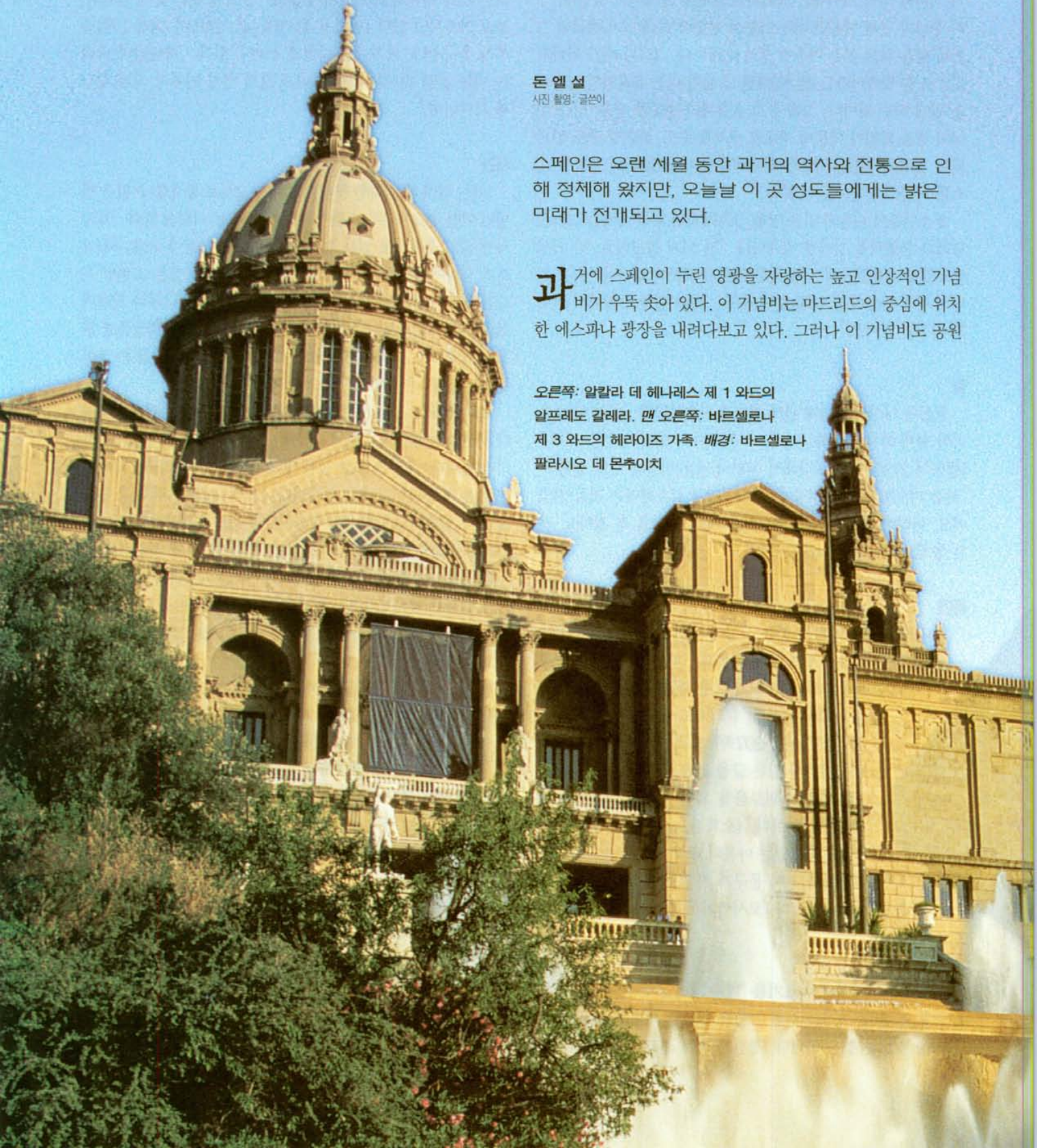
스페인 : 신앙의

돈 열설
사진 촬영: 글쓴이

스페인은 오랜 세월 동안 과거의 역사와 전통으로 인해 정체해 왔지만, 오늘날 이 곳 성도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 스페인이 누린 영광을 자랑하는 높고 인상적인 기념비가 우뚝 솟아 있다. 이 기념비는 마드리드의 중심에 위치한 에스파냐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념비도 공원

오른쪽: 알칼라 데 헤나레스 제 1 와드의 알프레도 갈레라. 맨 오른쪽: 바르셀로나 제 3 와드의 헤라이즈 가족. 배경: 바르셀로나 팔라시오 데 몬추이치



지평선을 찾아서

삼면에 늘어서 있고 꼭대기에 방송 및 통신 안테나 시설이 즐비한 유리 및 철재 탑들에 비하면 왜소하게 보인다.

우리가 상상 속에 그려보는 백색 페인트 칠을 한 조용한 마을은 오후 햇살을 받으며 언덕에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빛을 발하고 있지만, 마을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오토빠스타(고속도로)를 뿔뿔히 달리고 있는 유선형의 날씬한 독일제 세단과 스웨덴제 대형 트럭의 운전사는 이 마을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오늘날 돈키호테의 상상속의 풍차는 어쩌면 전력 사업의 일환으로 스페인 남부 해안의 알게시라의 능선을 따라 세워진 수십 개의 최첨단 풍력 발전기들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역사책 속에 묘사된 스페인의 모습이 아니다. 현재의 스페인은 곧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나라로 변모했으며, 더 이상 국교나 중앙 정치 세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자유의 이념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 혹자는 지나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현재 스페인 국민들은 어느 현대 국가에서나 흔히 볼 수 있듯이 도덕과 영성에 대한 도전을 맞아 싸우고 있다.

스페인에서 교회는 오늘날 회원들의 힘과 모범으로 인하여 어둡고 희미한 곳으로부터 나와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196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다음해 10월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공식적인 인가를 받았다. 1969년 10월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매리온 지 롬니 장로(1897~1988)가 스페인을 선교 지역으로서 헌납했다.

초기 교회의 발전 속도는 더뎠다. 초기의 성도들은 종종 다른





위쪽 삽입 사진: 마드리드 성전은 1999년 3월에
헌납되었다. 뒷쪽 오른쪽: 세비에 제1워드의 감독 호세
안타와 아내인 마리아 칼멘. 배경: 과달 퀴빌 강의 잔잔한
강물 위로 우뚝 솟은 세비에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심하게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성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현재 스페인의 말일성도의 수는 30,000명에 이른다.

교회의 발전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예는 1999년 3월 마드리드에서 헌납된 성전이다. 성전의 복합 건물에는 스테이크 센터, 선교사 훈련 센터 및 성전 선교사와 성전 매이트론을 위한 주택이 있다.

스페인 성도들의 발전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는 1998년 태버내를 합창단의 스페인 방문이었다. 특히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엘 에스꼬리알 수도원에서 열린 합창단의 공연은 대단한 주목을 끌었고 전국적으로 공연이 중계되었을 때는 복음을 나눌 기회가 활짝 열렸다.

교회 회원들은 스페인 사회에서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들에게 궁금증을 갖고 있다. 스페인 회원들은 그들이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의 교회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독교 종파인 가톨릭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흔하게 듣는다. 오늘날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교회에 입교했다는 소식은 호기심이나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불러오지만, 누가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20년

전에 그랬듯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칠 일은 아니다.

추방지에서 모범적인 본보기로

1970년 중반 카디스의 히메네스 가족이 교회에 입교하였을 당시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어린 아들은 보육원에서 쫓겨났고 손님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구두방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1976년 유럽에서 열린 대회에서 식량을 비축하라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1895~1985)의 권고를 따랐던 것이 도움이 되었지만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현재는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어 믿을 만한 단골 손님이 더 많이 생겼다고 엔리케 히메네스는 말한다. 그 동안 어려움을 잘 극복해 온 그들에게 요즘은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이 어떻게 낙천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

오늘의 스페인 가족의 기준으로 볼 때 히메네스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그의 자녀는 여덟 명이나 된다. 보통 가정들에는 둘 내지 셋의 자녀가 있다. 생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가정이 보통 한 층에 침실이 두 개 내지 세 개가 있는 피소(아파트)에서 산다. 히메네스 가족은 옛 도시인 카디스에 자갈이 깔린 꼬불꼬불한 좁다란 거리의 아파트 건물에 피소를 두 채 소유하고 있다.

히메네스의 거실에는 접어서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작은 식탁이 있는데 식사 때가 되면 꺼내어 편 다음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한다. 사람들이 말구레투 히메네스에게 이런 대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는지 물으면 그녀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어 필요한 것을 주시고 가진 것을 잘 꾸려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고 대답한다.

엔리케는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 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한다.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차례 시련을 주셨지만 제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언제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엔리케는 현재 카디스 스테이크



카디스 제1와드에서 감독단의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그의 아내는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이다. 여러 해 동안 부부는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고, 자녀들 모두가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며, 세 아들은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 전국의 말일성도 부모들은 복음의 영원한 가치가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스페인 호스피탈레트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단 제2보좌인 페란 실베스트레와 아내인 피랄은 아이들이 어릴 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들은 교회 조직이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약 80킬로미터 떨어진 자그만한 빌라프란카 지부에 참석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큰 아이가 현재 여섯 살임)이 표준이 다르고 세속적인 일로 인생의 비전이 흐려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피랄은 가족의 부양을 돕기 위해 밖에서 일하기보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머무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여성들로부터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이 그

녀가 그런 선택을 한 까닭이나 실베스트레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을 때 피랄은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영적인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발견한다.

피랄은 되도록 빨리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믿는다. 마드리드 서 스테이크 마드리드 제5와드의 루이스 앤젤 데 베니토와 같은 기타 말일성도 부모들도 역시 그렇게 믿고 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게 하라고 말한 요셉 스미스의 교리를 따라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아이들에게 원리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둘 다 필요합니다."

루이스 앤젤과 아내인 로자는 음악가로 피아노와 첼로를 연주한다. 그들은 마드리드에 소재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이따금 함께 연주회를 연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강의 일정을 잘 짜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늘 자녀들과 집에 있을 수 있었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은 침대 후반에 교회에 입교했다. 그들은 아이



들이 스스로 복음의 원리를 배워 가는 동안 자녀들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친구가 되길 원하지만 그전에 먼저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라고 루이스 엔젤은 말한다.

로자는 "남편과 제가 그리고 가정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바깥일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결과, 가정을 보살피려는 노력에 있어서 부모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 왔다. 복음을 통해서 매시모(남성의 권위주의적인 교만한 마음)를 극복할 수 있고 자녀들이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가정을 치유할 수 있다고 로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스페인 세비에 스테이크 세빌 제1와드의 청녀 회장인 마

위쪽 삽입 사진: 굴레르모와 밀라그로스 로드리구에스, 가운데 자리잡은 그들의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비롯한 로드리구에스 가족은 언젠가 카디스 스테이크 또는 단위 교회 중 한 곳에서 15가지의 직책을 맡은 적이 있었다. 그들의 봉사는 가족 중 6명의 귀한 선교사의 경험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위쪽 왼쪽: 마드리드의 마리아 로사도, 배경: 세비에의 플라자 데 에스파냐

리아 칼멘 엔타는 복음의 힘이야말로 청소년들이 부모나 청소년 지도자들의 모범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말한다.

칼멘 엔타의 남편인 호세는 와드의 감독이다. "스페인의 이곳의 문제점은 청소년의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서로 떨어져 고립되어 있으면 힘을 얻기가 어렵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호세와 그의 아내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계획을 짜서 와드 청소년은 물론 스테이크 내 다른 와드의 청소년들도 집으로 초대한다.

목표에 집중함

어릴 때부터 십대에 이르기까지 받은 지속적인 복음 교육의 진가는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쉽게 나타난다.

"저의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라고 바르셀로나 제1와드의 19세 된 에릭 라라는 말한다.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친 다음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인생은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배우고 따를 강한 모범의 예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는 것 외에 가정을 꾸려야 할 이유나 인생의 목적 같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저 방황할 뿐이죠."라고 교회에서 성장한 에릭은 말한다. 에릭은 할 수 있는 한 복음의 원리를 친구들과 나누지만 종종 순종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나면 친구들은 물러서려고 한다.

세상의 철학은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고 와니 파라는 말한다. 파라는 아직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카디스 스테이크 산 페르난도 와드의 상호부조회, 초등학교 및 청년 조직에서 지도자로 봉사했다. 기타 청소년 지도자들이 말하듯이 그녀는 복음의 영향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순결의 법은 어리석은 것이며 그런 표준에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라며 비웃는다고 말한다. 개중에는 순결의 법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스페인에서 이념의 자유가 크게 성장하면서 성 개방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 인권과 같은 기본적인 자유들과 연

관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자제를 요구하는 기타의 표준들과 함께 순결의 개념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매도한다.

청소년에게 다수의 견해를 따를 것을 강요하는 압력이 드세질 것이라고 와니의 형부인 22세 된 호르하 파라는 말한다. 그는 캘리포니아 에너하임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 임무를 마치고 최근에 귀환한 형제이다. 급우들 중 일부 학생이 졸업식 후에 강제로 그에게 술을 먹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그는 중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다행히도 표준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한 청소년에게 이 같은 압력은 대수로운 것이 아니지만, 늘 일부 동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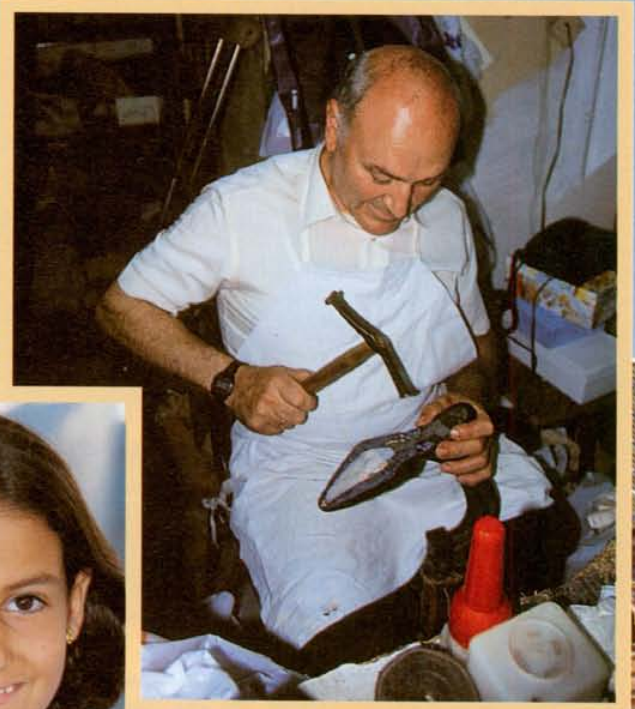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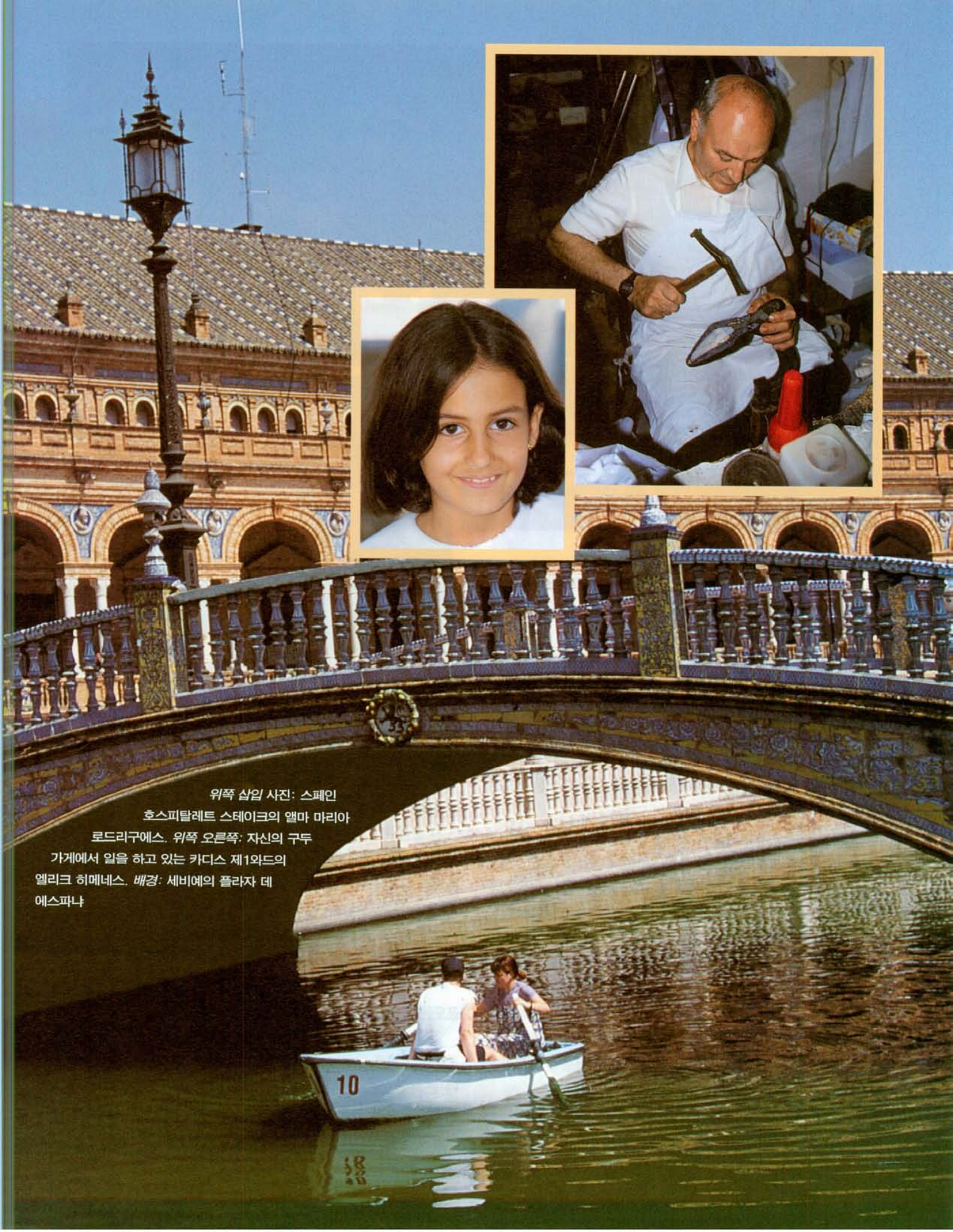
복음이 주는 화평을 나눔

소외감은 십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스페인 서 스테이크 마드리드 제5와드의 마리아 로사도는 카톨릭 대학교에서 유기 화학을 가르치고 있다.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사회 생활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독신 여성으로서 인생의 방향 감각과 목표가 확실히 선 남성을 찾는 일도 쉽지 않다. 그래도 그녀는 외롭지 않다. "실로 교회는 저와 사람들을 격리시킨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과 저를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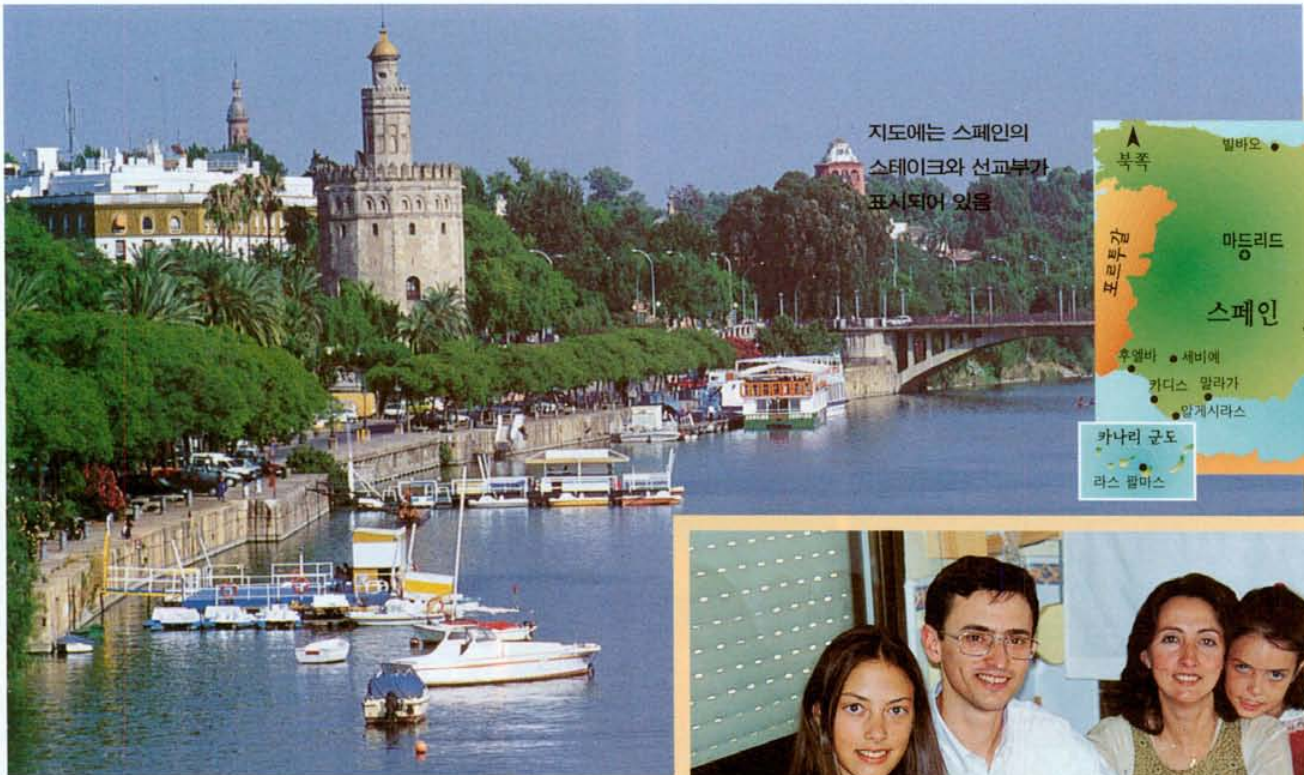
어떤 이들은 그녀의 신앙 때문에 그녀가 "보수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다.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복음은 제가 필요할 때 화평을 주고 제가 힘이 필요할 때 저의 힘이 되어 줍니다."

교회 회원들은 이웃들과 화평과 용기를 나누려 한다. 산 페르난도에서 호르헤의 부모인 로젤리오와 올리유는 수십년 동안 화평(복음)을 나눴다.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이 부부를 통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들의 스테이크장은 말한다.

1972년에 그들이 침례를 받았을 때 "저의 아버지는 제가 미쳤



위쪽 삽입 사진: 스페인
호스피탈레트 스테이크의 엘마 마리아
로드리구에스. 위쪽 오른쪽: 자신의 구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카디스 제1와드의
엘리크 히메네스. 배경: 세비예의 플라자 데
에스파냐



지도에는 스페인의 스테이크와 선교부가 표시되어 있음



다고 했지요.” 라고 그는 회상한다. 식구들 모두가 상심했지만, “저는 제가 택한 일이 옳다는 것을 아는 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올라야는 말한다.

침례를 받은 직후에 있었던 일을 올라야는 웃으며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초등학교 회장이 되었지요. 하지만 초등학교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었죠.” 그녀는 재빨리 모든 것을 배웠다. 그녀는 계속해서 가르치며 보조 조직의 지도자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남편도 여러 가지 지도자 역할을 했다. 그는 현재 스테이크 축복사와 성전 인봉자로 봉사하고 있다.

산 페르난도에 처음 복음이 소개될 무렵, 파라 부부는 그들 지역의 많은 초기 개종자들을 위해 선교사와의 복음 토론을 주선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동 스테이크 알카라 데 헤나레스 제2와드의 귀환 선교부장인 파우스티노 로페스는 이것이 바로 회원들이 해야 할 바라고 말한다. 그는 스페인 말라가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으며 고국의 선교부를 관리한 최초의 스페인 사람이었다. “회원들은 사람들이 복음 토론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친구를 통하여 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평판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회원의 도움이 없으면 선교사들은 복음을 가르칠 사람을 찾는 데 애를 먹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번영이 장애가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로페스 형제



위쪽: 알제시라스의 비나스 가족, 즉 딸인 애나, 왼쪽, 호세, 마리 갈렌과 딸인 패트리샤. 뒷쪽 왼쪽: 트리야나 다리에서 본 세비예의 풍경

는 말한다.

산 페르난도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귀환한 호르헤 파라는 이 말에 동의한다. 미국에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한결 쉬웠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적 편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잘 준비된 예배 형식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는 듯 하다.

포도원을 넓힘

최근 스페인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럽으로 몰려든 남미계 사람들에 있다. 스페인으로 이민 온 남미계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 된 지 오래된 사람들이며, 그들은 스페인 도회지의 많은 와드에서 활동하는 신앙이 강한 회원들이다. 일례를 든다면, 마드리드의 자카리우스

통계

회원 수: 30,000명

스테이크: 바르셀로나, 카디스, 엘체, 호스피탈레트,

마드리드 동, 마드리드 서, 세비에

선교부: 바르셀로나, 빌바오, 라스 팔마스(카나리 군도),

마드리드, 말라가

성전: 마드리드 근교인 모라탈레스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9년 3월 19일에서 21일에 걸쳐 헌납됨.

이 성전은 스페인, 포르투갈 및 남부 프랑스 지역의

회원들을 위한 것임.

가족은 원래 페루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다.

올란도와 에스페란사 자카리우스는 로시오, 가브리엘라 및 엘리사라고 하는 성년이 된 세명의 딸, 아들 호세, 질녀인 제니 카스트로를 데리고 있다. 스페인에 오기 전 교회에서 쌓은 오랜 경험들은 이곳 와드나 스테이크의 부름에 봉사하면서 큰 자산이 되었다.

회계사인 올란도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맨 먼저 스페인에 왔다. 그런 다음 나머지 식구들을 데려왔다. 네 명의 청년 자매들 모두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직장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유럽의 언어 등 필요한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곳 직업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일부 회원들은 스페인 교회의 신앙의 척도로서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호스피탈레트 스테이크 사다벨 와드의 페피타 몸포는 스페인의 초기 회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브라질에 사는 친척을 방문하러 갔다가 1964년에 침례를 받았다. 바르셀로나에서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 이후부터 그녀는 초등학교와 상호부조회의 여러 가지 부름에서 봉사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부름에는 각각 축복이 따릅니다. 각각의 부름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게 되죠."

카디스 스테이크 헤레스 와드의 헤수스 깬번은 지역 사회에서 회원들의 봉사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보살피 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보이면 주님께서도 그분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엘리카 블라스코는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마드리드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에서 살고 있지만, 오직 복음만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여행해야 하는 수고를 감내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말일성도들과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블라스코 자매는 딸과 함께 매일 충실히 세미나리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모두 전임 지부장이었던 알케키라의 마노로와 호세 비나스는 활동화 프로그램과 선교사 봉사의 기회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여러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브롤터가 내려다 보이는 휴양 지역이자 항구인 탓에 유동 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서 그들의 작은 지부가 많이 발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물론이죠."라고 마노로는 열성적으로 대답한다.

뿌리를 튼튼하게 함

마드리드의 새로 지은 성전은 스페인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눈에 잘 띄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말일성도의 영적인 닻이기도 하다. 회원들이 조상들과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행하기 위한 준비를 함에 따라 개인적인 준비를 하고 가족 역사 기록을 작성하는 회원의 수가 증가했다. 성전을 승영에 이르는 영적인 문으로 여기던 수많은 성도들이 마드리드 서 스테이크 마드리드 제 1와드의 로시오 야그웨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의심없이 믿고 있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의 영을 느끼기 위해 성전에 갑니다."

스페인 이 종교적인 나라에서 회의론으로 가득 찬 나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1971년부터 회원이었던 마드리드의 알투로 토레스는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론은 말일성도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손길을 내밀 때 극복될 수 있다. 교회는 성전으로 인해 새롭고 보다 스페인다운 이미지를 지니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가 더 큰 신앙을 갖고 주님의 사업을 보다 열심히 행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종교에 대해 만연한 회의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러한 예측은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저의 견해는 더 많은 회원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

되돌아가는 여행

바바라 에이콕

그림: 로버트 에이 맥케이

왜 교회로부터 멀어졌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격동의 시대였던 1960년대에 성장하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대의에 몰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의 대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저활동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다호 주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미국 원주민인 제 또래의 한 여성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가 다니는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하고 같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일성도가 살아야 할 생활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이죠.”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로즈마리와 저는 함께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우정은 두터워져 갔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로즈마리는 제게 알래스카에 있는 사기의 가족과 함께 여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름 동안 특별한 계획도 없고 뭔가를 모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가 짙은 안개로 정상이 잘 보이지 않는 에메랄드빛 녹색 초원의 섬에 착륙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로즈마리의 세 명의 남동생이 낚은 트럭을 가지고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섬의 유일한 포장 도로를 달려 마을로 들어가자 문득 특별한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해 여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어 통조림 공장에서 연어의 진액을 제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국 원주민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게 되었고 험준한 바위로 덮인 인적 없는 해변가를 누비며 바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들이 저의 외적인 모습에 개의치 않고 제 내부의 참된 자아를 받아들여 주었을 때 교회에 대한 저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섬의 지부는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해안 경비대의 기지

로 쓰이다 버려진 곳에서 집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미국 원주민 성도들이 일요일 아침에 모였을 때 저는 교회가 어릴 때 알았던 교회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마음에 위안이 찾아왔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곳에서도 한때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복음은 똑같으며 문화나 태어난 배경에 상관없이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 머무르면서 저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학교에 돌아갈 때쯤 저는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화되었고,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활동적인 회원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결혼을 한 후 저는 제 첫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복음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활동적인 회원이 아닌 저의 남편은 교회로 돌아가려는 저의 결심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되기로 결심을 한 다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물론경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구주께 맡기기로 작정하고 나서부터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전에 가서 그 곳의 영을 느끼면서 오래 전에 에메랄드 녹색의 섬에서 시작되었던 활동적인 회원이 되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왔습니다. 복음이 다시 완벽하게 저의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고 저의 가족 전통에 대한 애정도 커져 갔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저의 간증이 커져 갔습니다.

여러 해 동안 로즈마리와 저 사이에 연락은 끊겼습니다. 하지만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면 저의 마음은 제 마음속의 복음의 뿌리를 일깨워 준 소중한 친구와 아름다운 섬의 성도들을 만났던 신비로운 여름으로 달려가곤 합니다. □



우리가 탄 비행기가 짙은 안개로 정상이 잘 보이지 않는
에메랄드 빛 녹색 초원의 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곧 제가 특별한 곳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중병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까? 아래에 열거한 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1. 이야기를 잘 듣는다. 자신의 감정을 허심 탄화하게 털어 놓도록 격려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 시원하게 우는 것이 좋고 불안감, 혼란감과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말해 주며 안심을 시킨다.

2. 가족을 참여시킨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격려한다.

3. 판단을 삼가한다. 당신이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또는 어떻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 줄텐데라고 하는 말은 당사자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경우, 회개를 하고 과거의 일을 잊도록 격려한다. 회개를 하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4. 일상적인 과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의미있는 과제를 그들에게 준다. 그들이 당혹감과 무력감을 느끼지도 모른다. 그들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경우,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

5. 함께 시간을 보낸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언제라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6. 그들이 영적인 시각을 갖도록 돕는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

7. 교회의 자원을 이용한다. 교회는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고, 와드나 지부 복지 위원회를 통해 세속적인 지원을 해주며,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을 통해 도움을 준다.

단기간 도움을 준 다음 그래도 문제가 계속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새로 생긴 과부와 홀아비는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에 그렇듯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도 6개월 정도 더 관심이 필요하다. —교회 본부 복지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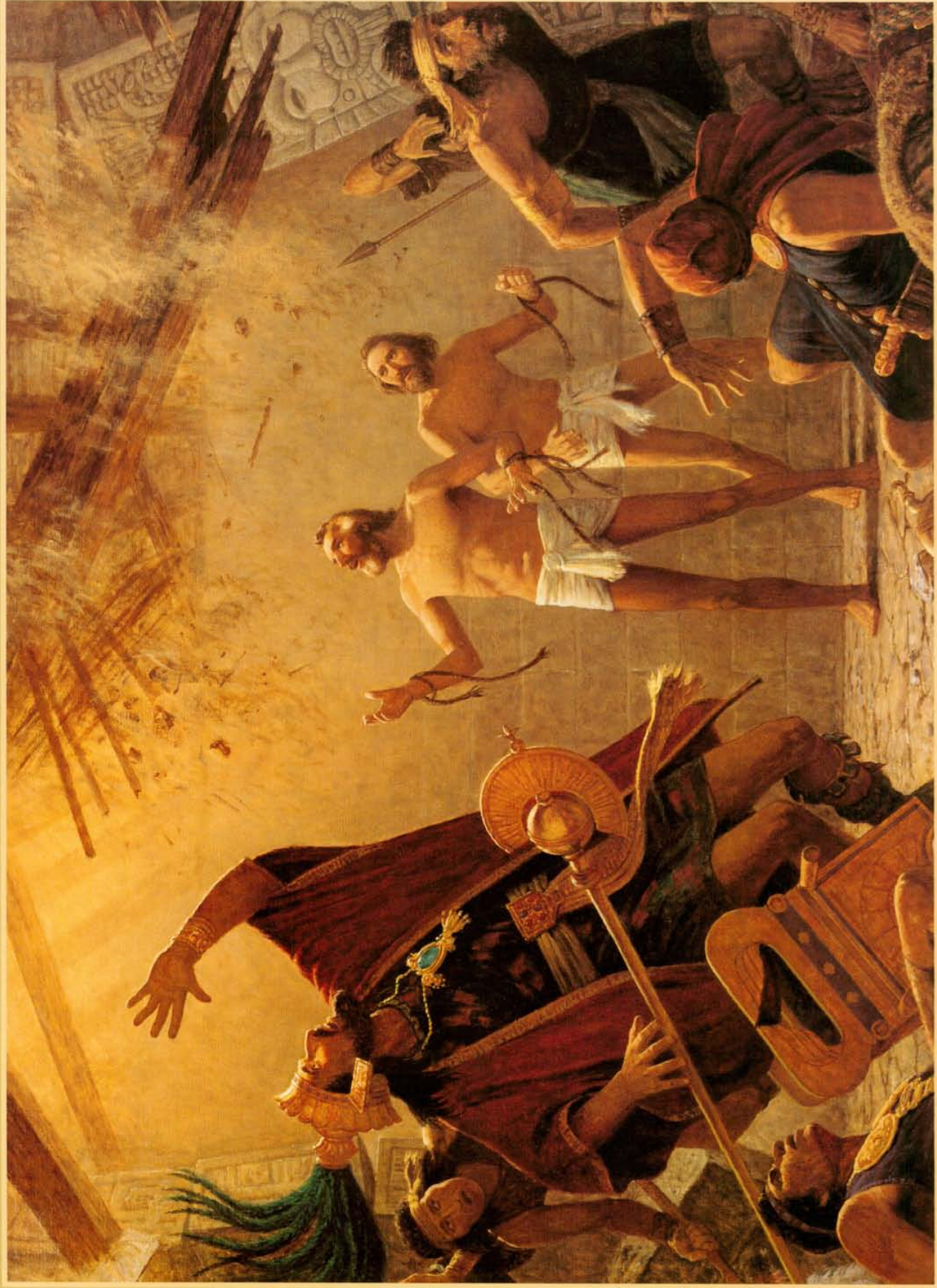


그림: 게리 엘 캠, 감옥에 갇힌 엘미와 앰올레크

“...땀이 무척계 흔들려 감옥의 벽이 두 쪽으로 갈라져 떨어졌으니, 엘미와 앰올레크를 매질했던 대판사의 변호사와 제사와 피사들이 무너지는 벽에 치어 죽었으며, 엘미와 앰올레크는 다치지 않고 감옥 밖으로 나왔으니...” (엘머서 14:27~28)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요한일서 3:7) 되도록 명함받았습니다. 그분은 어린이들의 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14)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어린이들을 가르치십시오”, 14쪽 참조.